

## 예산 그린바이오 산업 집적지 육성 백종원도 힘 보탠다

도·예산군·더본코리아 산업생태계 육성 업무협약  
그린바이오 육성·벤처 창업 지원·컨퍼런스 공동개최  
농산물+체험 서비스 제공 '예산 늘해랑 프로젝트' 협력

백 대표 "협력 파트너로서 연구·개발, 마케팅 적극 돋겠다"  
김 지사 "대한민국 농업의 새로운 선도모델 만들 계획"

충남 예산시장을 전국에 알린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이번에는 예산군을 그린바이오 산업집적지로 육성하는데 힘을 보태고 나섰다.

충남도는 5월 11일 도청 상황실에서 김태희 지사와 최재구 군수, 백종원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그린바이오 산업생태계 육성을 위한 벤처 캠퍼스 유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도와 예산군, 더본코리아는 ▲그린바이오 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한 사업 협력 ▲그린바이오 벤처 창업 지원 ▲국제 컨퍼런스 및 세미나·학술대회 공동개최 ▲예산 늘해랑 프로젝트에 협력한다.

앞서 예산형 구도심 지역상생 프로젝트로 예산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백 대표는 농식품부 주관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유치 등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기업의 사업화 지원부터 투자유치, 상장까지 가는 로드맵을 설계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물품구입 시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입주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겠다는 구매의향서에도 서명하는

등 확실한 지원 의사를 내비쳤다.

이는 벤처 캠퍼스 내 입주 기업이 생산한 제품에 대한 구매계획 수립 부분까지 도움을 준 것으로, 도는 보령제약 메디앙스 등 예산군 소재 기업으로 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스마트팜, 그린바이오 산업, 6차산업단지를 삼각 체계로 대한민국 농업의 새로운 선도 모델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벤처 캠퍼스는 그린바이오 기업들의 제품개발, 실증, 마케팅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거점 기관"이라며 "그린바이오 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꼭 유치해야 하는 시설인 만큼 백 대표와 더본 코리아에서 힘과 지혜를 모아 달라"고 강조했다.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는 그린바이오에 특화된 연구·제작용 장비·공간, 창업보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벤처 육성 전문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도는 이번 공모에서 천연물 소재 콘셉트로 약초생산 전용 첨단농장(생산),



충남도·예산군·더본코리아, 그린바이오 육성 협약

김태희(가운데) 충남도지사, 최재구(오른쪽) 예산군수가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충남도와 예산군, 더본코리아는 5월 11일 '그린바이오 산업생태계 육성을 위한 벤처캠퍼스 유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백종원(사진 왼쪽) 더본코리아 대표, 사진/맹철영

공공바이오파운드리(연구·시험생산) 등을 신청할 예정이다.

공모에 선정되면 2026년까지 290억 원을 투입해 예산군 삼교읍 일원에 조성 예정인 그린바이오 농생명 산업집적지(165만m<sup>2</sup>) 내에 건물 1개동, 주차장, 휴게시설 등 총 1만 1780m<sup>2</sup> 규모로 벤처 캠퍼스를 유치하게 된다.

그린바이오 농생명 산업집적지는 최근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에 도전장을

냈으나 농지 잠식 우려 등으로 선정되지 못한 곳으로, 이 부지에는 내년부터

2028년까지 3900억 원을 투입해 ▲스마트팜 단지 ▲그린바이오 지원 단지 ▲6차 산업화단지를 조성한다.

백 대표는 "미래 먹거리 대안으로 떠오른 그린바이오 사업에 평소 관심이 많았다"며 "협력 파트너로서 식품의 연구·개발 및 제조사업, 더본코리아 브랜드를 통한 마케팅 및 광고활동 등

도울 일이 있으면 적극 돋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그린바이오 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충남과 예산의 손을 기꺼이 잡아준 백 대표에게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지금처럼 충남과 예산의 미래에 늘 함께 해 주시길 바란다"고 답했다.

<관련 3면>

/기업지원과 041-635-3435

## 대기업에 '지역인재 우선 채용' 요청

도내 13개 대기업 대표 간담회  
충남형 인력 프로그램 참여 제안  
"탄소중립 실현에 기업 나서달라"

충남도가 도내 대기업에 지역인재 우선 채용과 탄소중립 동참을 요청하고 나섰다.

김태희 지사는 5월 11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안동일 현대제철 대표이사를 비롯, 도내 13개 대기업 대표 등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 참여 기업은 현대제철, 삼성 디스플레이, 한화토탈에너지스, 케이티(KT), 현대자동차, 삼성에스디아이(SDI), 에스케이 이엔에스(SK E&S), 에이치디(HD)현대오일뱅크, 엘지(LG)화학, 롯데케미칼, 현대엔지니어링, 동국제강, 케이지(KG)스틸 등이다.

도는 지역인재가 도내에서 일하며

정착할 수 있도록 충남형 인력 양성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충남은 경기도에 이어 전국 2위 규모의 산업 생산 기반을 보유하고 있고, 지역대학의 기술인력 양성 역량도 우수하지만, 지역대 졸업자의 도내 취업률은 20.2%에 불과한 형편이다.

이에 따라 도는 ▲충남형 계약학과 ▲충남형 디지털 아카데미 등 현장 맞춤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다.

충남형 계약학과는 기업 채용을 조건으로 대학이 신입생을 모집하는 것으로, 정부 공모를 통하거나 도 자체적으로 2025년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운영 업종은 충남 주력 산업으로 전후방 인력 수요가 높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2차전지 등이다.

탄소중립 동참과 관련해서는 ▲탄소

중립경제 실현 고탄소산업 탄소 순환

공정 ▲탄소 저감 건설 소재 규제자유 특구 ▲탄소포집활용(CCU) 실증센터 구축 ▲수소경제 활성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충남형 알이(RE)100 추진 등 5건을 껴내며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김 지사는 "지역에서 키운 인재를 지역 기업에서 채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충남형 계약학과 추진에 동참하고, 충남의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탄소중립 실현에 기업들이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기업들은 ▲현대대죽2일반산업 단지 실시계획 승인(에이치디현대오일뱅크) ▲아산모터스밸리 산업단지계획 및 관리기본계획 변경승인 신청 시 조속 처리(현대자동차) 등을 건의했다.

도는 각 기업의 건의를 적극적으로 검토, 지원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기업지원과 041-635-3438

## 행복한 우리 가족 사진 콘테스트



- |        |   |
|--------|---|
| 이벤트 주제 | 행복한 우리 가족   |
| 이벤트 대상 | 대가족(3대 이상 해당) / 디자녀 가정(3자녀 이상 해당)   |
| 이벤트 기간 | 2023. 5. 4.(목) ~ 5. 18.(목)  |
| 당첨자 발표 | 2023. 5. 23.(화) ※ 충남도정신문 973호에 발표. 당첨된 사진은 신문에 게재 예정                              |
| 이벤트 방법 | 1. 온 가족(대가족/디자녀 해당)이 함께하는 행복한 순간 촬영<br>2. 충남도정신문 블로그 게시물 내 네이버 풀 링크를 통해 촬영한 사진 제출 |
| 이벤트 경품 | 요기요 상품권 3만원권(5명)   네이버페이 상품권 3만원권(5명)   |

충청남도  
도정신문

### 도정 비전

## 힘쎈충남 대한민국의 힘

도정 현안과제를 강력한 추진력으로 신속히 해결하고,  
이를 통해 국가의 성장과 발전을 선도하겠다는 의미가 담겼다.

### 도정 목표

- 힘차게 성장하는 경제
- 지역이 주도하는 발전
- 함께하는 따뜻한 공동체
- 가치있고 품격있는 삶
- 우리 뜻이 통하는 충남

### 지면안내

그린바이오 클러스터 격동의 충남 100년	3면
치매예방 퀴즈	8면
신진예술인 갤러리 신설	10면
충남 청년농부가 간다	11면



# 2028년 서산공항 개항 목표 “추진 의지 변함없다”

지방공항 부정적 시각 예타 탈락  
도·국토부 지속 협의 타당성 확보

충남도민의 염원인 서산공항 건설사업이 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문턱을 넘지 못했다.

도는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서산공항 건설을 지속 추진, 당초 2028년 개항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홍순광 도 건설교통국장은 5월 9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예타를 통과하지 못한 점은 유감 이지만, 서산공항 건설 추진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라며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타당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홍 국장은 “2028년 서산공항

개항 시기에는 문제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산공항은 서산시 고북·해미면 일원 공군 제20전투비행단 활주로를 활용하고, 500억 원을 투자해 터미널과 계류장, 유도로, 진입도로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2017년 국토부가 추진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는 경제성(B/C) 1.32와 총 사업비 509억 원으로, 경제성 및 사업성이 충분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2021년 11월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서산공항은 지난해 10월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참여한 1차 점검회의에서 사업비가 758억 원으로 당초보다 249억 원 늘어났다.



## 서산공항 건설

- ▲ 위치 : 서산시 고북면, 해미면 일원(해미비행장 11,900천m<sup>2</sup>)
- ▲ 사업비 : 509억원(국비)
- ▲ 사업내용 : 터미널, 계류장, 유도로, 진입도로 등 공항시설 조성

도는 국토부, 전문괴들과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사업 계획 변경 요청 등을 통해 사업비를 532억 원으로 조정하고, B/C는 0.81로 맞췄다.

그러나 지난 3월 예타 마지막 관문인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분과위

원회에서 민간 위원들이 적자 운영 등 지방공항 건설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분과위원회는 종합평가(AHP) 0.5 미만으로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서산공항은 9일 열린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타를 통과하지 못했다.

도는 이번 예타 결과를 딛고, 서산공항 건설 사업 추진에 더 박차를 가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도 이날 ‘서산공항 사업 추진 의지 확고’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서산공항이 예타를 통과하지 못했으나 사업 추진 의지는 변함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토부는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항공 네트워크 확대’와 지역공약 이행을 위해 서산공항 사업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예타를 통과하지 못한 사유를 자세히 분석해 향후 추진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로철도항공과 041-635-4695

## KTX 공주역-세종 ‘직통 4차로’ 청신호

기재부 예타 대상 사업 선정  
기준 40분→20분대 이동 기대

충남 한국고속철도(KTX) 공주역에서 세종시까지 20분대로 이동할 수 있는 4차선 도로 신설 사업이 청신호가 켜졌다.

도는 5월 9일 열린 기획재정부 재정 사업평가위원회에서 ‘행복도시~탄천 연결도로’가 2023년 제1분기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현재 KTX 공주역에서 세종까지 이

동 거리는 32.9km, 소요 시간은 40분이다.

행복도시~탄천 연결도로는 공주시 탄천면 삼가리(국도40호)에서 KTX 공주역을 지나 세종시 장군면 금암리(국지도9호)를 연결하는 4차선이다.

총 연장 23.5km에 사업비는 4365억 원이며, 이 중 국비는 75%이다.

이 도로를 이용해 KTX 공주역에서 세종으로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25분 안팎으로 15분 단축이 예상된다.

특히 공주 청벽대교 옆에 금강 횡단 교량을 신설, 공주시 반포면 마암리에서 세종 남부원으로 직접 진입할 수

있다.

호남권에서 KTX를 이용해 세종을 방문할 경우에는 공주역에서 하차해 이동하는 새로운 교통 수요도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예타 대상 선정은 기존 지방도 노선을 최대한 이용하는 등 사업 계획 보완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도는 사업 시행의 첫 관문을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는 예타 최종 통과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예타는 한국개발연구원이 시행할 예정으로, 교통 수요 분석과 경제성 분석 등을 통해 사업성을 확보하면 건설 사

## 행복도시~탄천 연결도로

- ▲ 위치 : 세종시 장군면(국지96) ~ KTX공주역~공주시 탄천면(국40)
- ▲ 사업비 : 4,365억원(국비 75%, 지방비 25%)
- ▲ 사업내용 : 도로건설 23.5km(4차로)
- ▲ 사업기간 : '23년~ '29년



업을 본격 추진하게 된다.

홍순광 도 건설교통국장은 “행복도시~탄천 연결도로가 뚫리면 한국고속철도(KTX) 공주역의 열악한 지리적 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금강 횡

단 교량 신설로 충남과 세종시의 연계성 향상이 기대된다”라며 “예타 통과를 위해 행복청, 공주시 등과 함께 총력 대응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도로철도항공과 041-635-4674

## 김태흠 지사 국비 10조 확보 총력

해수부 등 4개 중앙부처 방문  
도정 현안, 정부예산 반영 요청

충남도가 도정 현안에 대한 관심과 내년 정부예산 10조 원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5월 8일 해양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방문해 주요 현안에 대한 정부예산 반영 필요성을 설명했다.

내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 장·차관을 잇따라 만나는 강행군을

편 것이다.

가장 먼저, 해수부를 찾은 김 지사는 조승환 장관과 면담을 갖고 ▲도 바다 역 조성사업(10억) ▲해양바이오 소재 대량생산 플랜트 건립(40억) ▲최첨단 해양허브(관광+과학) 인공섬 조성(5억) 등 신규사업 8건 81억 원을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박보균 문체부 장관을 만난 김 지사는 ▲K-해리티지 관광밸리 조성(20억) ▲공주 백제문화촌 조성(15억)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 지원(154억) 등 도정 현안 5건 209억 원 지원을 요청했다.

산자부에서는 장영진 1차관에게 ▲자율주행 모빌리티 부품기술 상용화(예타 선정) ▲차량용 융합반도체 혁신생태계 구축(예타선정) 등 4건에 대한 국가정책 책임자를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과기부에서 이종호 장관을 만난 김 지사는 ▲충남혁신도시 칩 앤모빌리티(Chip&Mobility) 영재학교 설립 ▲국·공립 전문과학관 설립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도정 핵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부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며 “우리 도가 선도적으로 시행 중인 사업의 국가정책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예산담당관 041-635-3174

## 잿더미로 변한 삶터 ‘온정’으로 다시 세웁시다

4월 2일 충남 홍성 등 5개 시·군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홍성 45가구 67명 ▲보령 7가구 13명 ▲부여 3가구 9명 등 모두 54가구 89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삶터가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하며 실의에 빠진 우리 이웃이 새로운 희망을 싹틔우고, 밝은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와 작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때입니다.

### ▶모금계좌 : 농협 301-0700-1212-01

예금주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충남

### 산불피해 복구 성금 기탁 현황 (23.5.4~5.12일 기준)

▶학림사 대원 스님 500만 원 ▲충청남도4-H연합회 500만 원



# 삽교 일원 3900억원 투입 첨단농업 클러스터 조성

스마트팜·6차산업·그린바이오  
2028년까지 클러스터 조성  
“대한민국 농업 新 선도모델”

충남 벤처캠퍼스 유치 ‘집중’  
그린바이오 기업 제품 개발  
마케팅 등 체계적 지원 거점으로

충남도는 오는 2028년까지 예산군 삽교읍 일원에 사업비 3900억 원을 투입해 그린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한다. 그린바이오 산업을 중심으로 농업과 산업을 융복합, 미래농업 전환을 이끌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그린바이오 산업은 농업과 바이오를 기반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산업으로 세계적으로 중요한 분야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는 농식품 분야 핵심 국정과제인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해 고부가가치 신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을 중점 육성하고 있다. 도가 중점 추진하는 그린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대해 살펴본다.

## 그린바이오 산업 생태계 육성

충남 예산에 스마트팜 단지, 그린바이오 단지, 6차 산업화단지가 연계된 대규모 첨단 농업 클러스터가 조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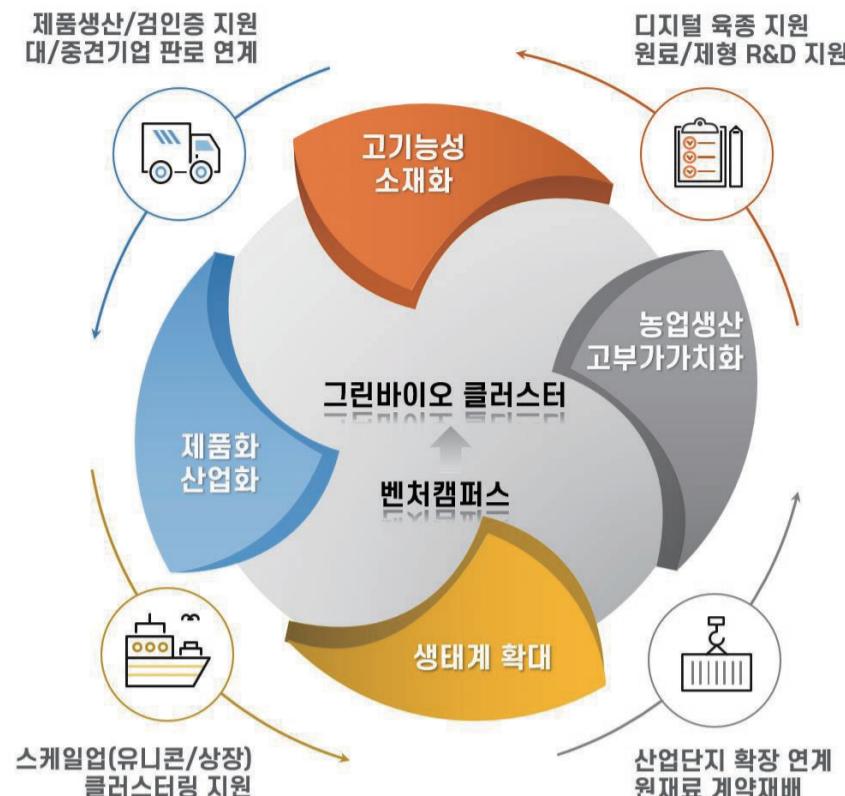
그린바이오 클러스터는 예산군 삽교읍 일원 165만m<sup>2</sup>의 부지에 2028년까지 3900억 원을 투입해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사업은 ▲스마트팜 단지 조성 ▲그린바이오 단지 조성 ▲6차 산업화 단지 조성 등이다.

스마트팜 단지는 그린바이오 클러스터 내 스마트팜을 자가형·기업형·청년 임대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조성해 충남 농업의 혁신 성장을 이끈다. 스마트팜 단지를 활용해 고기능성 바이오소재를 그린바이오 특화 기업에 공급하게 된다. 스마트팜 단지 조성으로 3년 간 청년(지역대 졸업생) 150명 유입 등 농업 현장 청년 유입, 청년농업인 육성 및 정착 지원 등 효과가 기대된다.

그린바이오 지원단지에는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식품연구 기관 등을, 6차 산업화단지에는 산업용지, 물류시

## 충남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추진 방향



설, 저온저장고 등 유통시설과 생산·가공장을 조성할 예정이다.

도는 이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10조 5000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청년 농업인 등 2만 4000명의 고용 유발 효과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 그린바이오 벤처 창업 지원

도는 그린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첫 사업인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유치에 힘쓰고 있다.

도는 이달 중순 농림축산식품부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공모에 신청할 예정이다.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는 그린바이오에 특화된 연구·제작용 장비·공간, 창업보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전문시설이다.

공모에 선정되면 2026년까지 290억 원을 투입해 예산군 삽교읍 일원에 조성 예정인 그린바이오 클러스터(165만 m<sup>2</sup>) 내 총 1만 1780m<sup>2</sup> 규모로 벤처 캠퍼스를 조성할 계획이다.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에는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 입주시설, 공동 실험·인증시설, 창업 보육 지원 공간 등이 들어선다. 특히 천연물을 활용한 고기능성 식품, 동물의약품, 뷰티제품 등 생산·연구와 창업을 지원하게 된다.

벤처캠퍼스 입주시설은 20곳으로, 입주기업은 향후 졸업 후 산업단지로 이

전하여 경영하게 된다.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는 서해선 내포역 등 접근성이 뛰어나고, 내포신도시에 인접해 있어 편리한 정주환경을, 충남TP바이오센터, 공주대·순천향대 등 그린바이오 연구 및 창업보육 지원 기반을 갖추고 있다. 사과, 쪽파, 잣 등 풍부한 그린바이오 산업화 소재를 보유하고 있다.

사업운영단으로 충남테크노파크를 선정했으며, 창조경제센터와 그린스타트타운, 경제진흥원 등과 협업을 통해 벤처기업 창업과 인큐베이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이와 함께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내 성장가능한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충남그린바이오 창업펀드(가칭)를 100억 원 규모로 마련해 전략적 지원 체계도 구축한다.

## 벤처 캠퍼스 유치 적극 대응

도는 5월 11일 예산군, 더본코리아와 ‘그린바이오 산업생태계 육성을 위한 벤처 캠퍼스 유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도는 그린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을 비롯 농림축산식품부 공모 선정 시 원활한 네트워크 협력을 위해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다.

앞서 도는 4월 24일 공주대 등 도내 18개 대학·기업·기관과 그린바이오 산

## 충청남도 어르신 심폐소생술 교육

도내 마을회관  
경로당  
영농 현장

노인을 중심으로  
심폐소생술 교육  
중점 실시

## 심폐소생술은,

심정지 발생 시  
가슴을 강하게 반복적으로 압박하며  
혈액 순환을 돋는 응급치료법



## 3배 이상!

최초 목격자가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확률



# 충남도-대전시 'K-방산' 전진기지로 거듭난다

## 첨단 국방산업벨트 조성 협약

초광역 국방산단 타당성 검토  
국방 공공기관 유치 협력키로

충남도와 대전시가 국방산업단지 조성, 국방 관련 공공기관 유치 등을 위해 손을 잡았다.

김태흠 지사는 5월 9일 도청 상황실에서 이장우 대전시장과 '충남·대전 첨단 국방산업벨트 조성 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첨단 국방산업벨트 조성을 통한 국방산업 육성 및 국방력 강화, 상생 발전 등을 위해 협력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도와 대전시는 국방 관련 산단 조성에 따른 규제 개선 및 중앙 권한의 지방 이양 추진을 위해 공동 협력·대응한다.

도는 전력 지원 체계 중심으로 논산 국방국가산단 조성을 추진 중이다.

대전은 연구기관 및 인적 자원을 활용한 전력 체계를 중심으로 안산 첨단 국방산단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도와 대전시는 또 충남·대전 초광역 국방산단 조성을 적극 검토·추진키로 하고, 연내 타당성 검토를 추진할 방침



5월 9일 열린 '충남·대전 첨단 국방산업벨트 조성 협력' 협약식에서 김태흠(왼쪽) 충남도지사와 이장우(오른쪽) 대전시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다.

두 지역은 이와 함께 국방산업 육성·발전을 위한 연구·자문단 공동 참여, 국방 주력산업 및 방산 혁신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도와 대전시는 특히 국방 관련 공공 기관 유치 등에도 공동으로 협력하고 대응키로 약속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김태흠 지사는 "충남 남부권과 대전에는 국방 관련 기관과 연구기관, 대학 등이 밀집해 첨단

국방산업벨트 조성과 스마트 국방산업 육성의 최적지"라며 "최고 인프라와 풍부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면 충남 남부권과 대전은 'K-방산'의 전진 기지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남 계룡에는 삼군본부가, 논산에는 국방대와 육군훈련소, 육군항공학교 등이, 대전에는 국방과학연구소와 육군군수사령부, 육군 교육사령부 등이 위치해 있다.

/기업지원과 041-635-3443

## 경제 견인 '우수기업' 찾는다

### 6월 말까지 기업인대상후보 모집

충남도는 오는 10월 개최 예정인 '제30회 충남도 기업인대상' 후보 기업을 모집한다.

기업인대상은 기업인의 자금심사 기록 높이고, 경영 능력 및 기술력 우수 중소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매년 선정해 표창하고 있다.

추천 대상은 공고일 기준 도내에 사

업자 및 공장을 등록하고, 제조업을 3년 이상 영위(타 시도 제조업력 포함)하고 있는 중소기업 대표이다.

접수는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기업체 실태 평가서, 최근 3년간 재무제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사업장 소재지 기관 지원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평가는 기업 건실도와 경영, 기술, 일자리, 수출,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진행하며, 수상자는 9월 중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최우수 기업에는 종합대상, 경영·기

술·장수·창업 4개 부문 최고 기업에는 부문별 대상을, 우수기업인 5명에게는 우수기업인상을 각각 수여한다.

수상 기업에는 ▲도 경영안정자금 이자 보전 추가 1% 우대 ▲지방세 세무조사 3년 유예 ▲산업포장 추천 우선권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자세한 내용은 도 누리집(<http://www.chungnam.net>) 공고·고시를 참고하거나 도 기업지원과 또는 각 시군 기업 지원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기업지원과 041-635-3445

## 도정게시판

### 디스플레이 지원 참여기업 모집

충남테크노파크(충남TP)는 충남디스플레이 품질고도화 및 사업화지원사업 참여기업을 5월 23일까지 모집한다.

충남TP가 충남도와 함께 추진하는 이 지원사업은 충남 디스플레이산업 유망 품목에 대한 종합기술지원으로 소재부품국산화 및 제조현장 공장개선·사업화지원을 한다.

올해는 20개사 내외 기업을 선정해 기업당 최대 3000만원 이내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충남지역 주력산업인 디스플레이 소재부품장비산업 연관 산업 영위 중소기업으로 공고일 기준 충남내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이다.

지원기업으로 선정되면 신규비즈니스 발굴, 제조(생산)·레벨업지원, 수출 관련 국내외 전시회 및 해외바이어 초청, 특허지원 등 공급기관으로부터 기술지원 및 기업지원서비스를 단독 혹은 맞춤형 패키지 형태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충남테크노파크 홈페이지 공고 게시문을 참고하여 접수하면 된다.

/충남TP 041-589-0915



를 실시한다.

검사 대상은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이용한 바닥분수, 연못, 실개천 등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해 물놀이를 하도록 설치한 시설이다.

도내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운영주체 별로 민간 31개, 지자체 47개, 공공기관 5개 등 총 83개이다.

연구원은 수질기준 초과 시 자체없이 개방을 중지하고 소독, 청소, 용수교체 등의 조치를 완료한 후 재검사를 실시해 수질기준 충족 시 재개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가동 개시일을 기준으로 운영기간 동안 15일마다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검사 시료는 가급적 이용자가 많은 날에 채수해야 한다.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 041-635-6881

###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검사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여름철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무료 수질검사

위협 시나리오 공모대회'를 개최한다.

신청 대상은 충청권 소재 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 및 대학원생으로, 개인 또는 팀(3인 이내) 단위로 참여 가능하다.

공모분야는 수자원, 철도, 발전, 슈퍼컴, 바이오 분야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복수 분야 응모도 가능하다.

신청은 공모전 누리집(<http://ccsc2023.kr>)에서 지정된 양식을 내려받아 참가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와 함께 사이버위협 대응 시나리오를 작성해 7월 31일까지 전자우편(이메일주소 작성)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상식은 9월 19일 소노벨천안에서 개최되는 '2023 충청 사이버보안 컨퍼런스'에서 진행한다.

/정보화담당관 041-635-3731

### 인삼 역병 발생 예방 방제 중요

충남도 농업기술원 인삼약초연구소는 인삼 재배포장에 역병 발생이 우려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역병 발생 최소화를 위해서는 출아중인 인삼이 상처를 입지 않도록 방풍울타리를 보완하고 빗물이 두둑 위로 유입되지 않도록 누수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또 주요 발생지는 이듬해에도 연속 발생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달 중 반드시 적용약제를 예방적으로 살포해야

## 충남형 100대 통계 개발 정책자료 활용

### 통계데이터 확대 방안 회의 실국별 데이터 통합 관리

생산하는 내부자료 중 대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료를 발굴·취합해 기존 관리통계 항목에 추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통계 작성 및 제공 시 시기별·부서별 수치 차이가 발생하는 오류를 최소화하고, 일관성 있는 자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5월 9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백낙흥 정책보좌관과 22개 실국원이 참여한 가운데 '통계데이터 확대 방안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급변하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 통계데이터 생산과 부서별 자체 생산·관리하는 주요 통계를 정책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그동안 도는 기초자료로 인구, 노동, 문화, 환경 등 17개 분야 283개 항목의 '충남도 기본통계'와 중앙부처 생산통계 및 도 자체 통계자료 등 10개 분야 145개 항목의 '도정 주요 통계'를 생산·관리해왔다.

앞으로 실국원 주무팀장들은 자체

/데이터담당관 041-635-2163



### 어르신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충남소방본부가 노인 심정지 환자의 소생률을 높이기 위해 개최한 '어르신 심폐소생술 경연대회'에서 서산소방서 대표팀이 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경연대회는 5월 11일 도청 문예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만 65세 이상 도민 5명으로 구성된 1팀이 5분 동안 짧은 연극 형태로 심폐소생술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충남소방본부 041-635-5733

수 공고'를 참고하고, 제품 관련은 정보통신보조기기 통합콜센터(☎1588-2670)로 문의하면 된다.

/정보화담당관 041-635-3711

### 데이터 청년 캠퍼스 교육과정

충남도는 호서대학교와 함께 데이터 기반 인공지능(AI) 융합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2023 데이터 청년 캠퍼스'를 운영한다.

도와 호서대는 6월부터 8월까지 데이터 산업 혁신을 주도하고, 국가경쟁력의 원천이 될 전문 인력 양성 및 취업 연계를 목표로 협력한다.

교육대상은 석·박사 재학생 및 데이터 관련 전공 3·4학년 재학생이며, 6월 10일까지 총 35명을 모집한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이다.

교육 프로그램은 기반기술 교육, 기관 연계 실습 프로젝트 과정으로 구성된다.

신청은 서류를 구비해 6월 23일까지 누리집(<http://www.at4u.or.kr/>)이나 거주지 관할 시군 접수처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도 누리집에 게시된 '2023년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 및 접

수 공고'를 참고하고, 제품 관련은 정보통신보조기기 통합콜센터(☎1588-2670)로 문의하면 된다.

/데이터담당관 041-635-3201

## 충남도정

발행인 충청남도 정무부지사

창간 1990년 12월 15일

주소 충남 홍성군 홍복읍 충남대로 21

전화 041-635-2035

홈페이지 <https://blog.naver.com/chungnamdojung>

편집인 충청남도 공보관

발행주기 매월 5, 15, 25일

안내 041-635-2035



## 전국 최초 '휠체어럭비팀' 창단식

충남도가 전국 최초로 지체장애인으로 구성된 장애인 휠체어럭비팀을 창단, '장애인 운동하기 좋은 충남' 조성에 한 걸음 더 나아갔다. 도는 5월 11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김태홍(도장애인체육회장), 김종배 대장장애인럭비협회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휠체어럭비팀 창단식'을 개최했다.

휠체어럭비팀은 최대용 감독을 중심으로 남자 안태균(43), 전경민(39), 안영준(35), 송문령(28) 선수와 여자 박지은(33) 선수가 합류한 상태다.

휠체어럭비는 농구장 크기의 경기장에서 경기용 휠체어를 타면서 휠체어끼리 유일하게 접촉할 수 있는 경기로, 재활운동 뿐만 아니라 격렬하고 스릴 있는 운동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스포츠이다.

/체육진흥과 041-635-3856

## 코로나19 일상적 관리체계로 전환

**선별진료소 운영 순차 종료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조정  
эм프스 등 하절기 감염병 감시**

충남도가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흐름에 별맞춰 대응계획을 일상적 관리체계로 전환한다.

조대호 도 복지보건국장은 5월 10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정례 브리핑을 갖고 "정부의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조정이 예정됨에 따라 이에 별맞춘 코로나19 대응계획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5월 4일 세계보건기구(WHO) 국제보건규약(IHR) 긴급위원회에서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선포 해제에 따라 정부는 코로나19 위기단계를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도는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대응계획을 마련해 코로나19의 일상적 관리를 위한 단계별 대응에 나선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대응 체계를 운영하는 현 체계를 개편하고 방역대책반과 소관부서인 도 감염병관리과를 중심으로 관리하는 단계별 대응체계를 구축해 일반 의료체계로의 전환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코로나19 안정화에 따른 수요 감소에 따라 코로나19 치료·지정·병상을 점차 줄이고 일반 병상을 운영해 안정적인 일반 의료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단계별로 임시선별검사소와 선별진료소 운영을 순차 종료하고 보건소 업무도 정상화하며, 원스톱 진료기관 운영 및 재택치료자 관리도 종료한다.

아울러 국내 엠포스 환자 증가에 따라 방역대책반을 구성해 운영하는 등 감시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앞으로 의료기관 신고·보고 체계를 강화하고 예방수칙을 홍보하는 등 엠포스 감시·예방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며,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시 대응 의료자원을 신속히 추가 확보할 방침이다.

여름철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 집단 발생에 대비해 9월까지 비상방역체계를 운영한다.

조 국장은 "코로나19의 일상적 관리 체계 전환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라며 "단계적으로 대응체계를 전환하면서 물 샐 틈 없는 감염병 관리를 통해 도민의 건강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감염병관리과 041-635-4361

## 2025년까지 폐배터리 재사용 산업화센터 구축

**산업부 공모 선정 국비 150억  
기술 개발, 장비 등 기반 마련**

충남도가 폐배터리 산업화를 선도할 수 있는 폐배터리 재사용 산업화센터 구축에 나선다.

도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자동차산업 기술개발 사업' 공모에 제출한 '전기차 폐배터리 재사용 산업화 기반구축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 선정에 따라 2025년까지 국비 150억 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300

억 원을 투입해 전기차 배터리 산업화 기반을 구축한다.

도는 지난해 산업부 주관 '폐배터리 재사용 기술개발 사업' 공모에도 선정된 만큼 이들 사업을 연계해 추진함으로써 폐배터리 산업화를 선도해 나아간다는 방침이다.

주요 사업은 기술개발과 기반구축 부문으로 나눠 추진한다.

기술개발 부문은 ▲전기차 실주행 기반 배터리·차량 데이터 플랫폼 개발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 응용제품 검증 기술개발 ▲리튬이온전지 재활용

공정 기술개발이다. 기반구축 부문은

▲시험설비, 연구인력, 관제시설을 집적화한 종합지원시스템인 산업화 센터 ▲배터리 해체·분해·추출·전처리 장비 구축 등으로, 전주기 시험평가 체계를 마련해 기술지원을 확대한다.

도는 선제적으로 그린모빌리티 기반의 배터리 신산업 육성을 통해 틸란소 기반 에너지전환과 탄소중립 사회를 실현, 탄소중립경제 특별도로서의 선도적 역할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탄소중립경제과 041-635-2262

## 발달장애인 24시간 긴급돌봄센터 공주서 개소

**<전국 1호>**

**최대 7일까지 1일 3만 원  
보호자 돌봄 부담 ↓ 삶의 질 ↑**

충남 공주서 전국 1호 발달장애인 24시간 긴급돌봄센터가 문을 열었다.

도는 5월 8일 공주에서 '충청남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충청남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는 정부 국정과제인 '발달장애인 평생 돌봄 강화 대책' 가운데 하나로 시범 추진하며, 지난 3월 공모를 통해 사회

복지법인 행복도량을 운영법인으로 선정한 바 있다.

센터는 소득에 상관없이 만 6세 이상~65세 미만 발달장애인 중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심리적 소진 등 긴급상황이 발생해 일시적 돌봄이 필요한 경우 이용할 수 있다. 센터에서는 입소자에게 목욕 등 일상생활 및 식사 지원, 취미 등 사회활동 참여에 대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1회 입소 시 최대 7일, 연간 최대 30일 이용할 수 있고 이용요금은 1일 3만 원(이용료 1만 5000원과 식비 자부담 1만

5000원)이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은 이용료 없이 식비만 일부 자부담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도는 앞으로 시범 운영 평가를 거쳐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며, 발달장애인과 발달장애인 가족을 위한 평생돌봄 체계 강화 사업을 지속 발굴·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행사는 현판식, 시설 시찰, 간담회 등의 순으로 진행했으며, 간담회를 통해 발달장애인 보호자, 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었다.

/장애인복지과 041-635-2632

## 고소득·새 도전·행복 우수 청년농부 50인 선정

### 전문 농업인 성장 지속 지원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5월 4일 보령시 청라면 소재의 한 스마트팜 농가에서 '힘쎈충남, 도지사와 우수 청년농부의 농담(農談)'을 개최했다.

발해 성과를 낸 '새 도전' 분야, 도내 농촌에 살면서 행복함을 느끼고 있는 '행복' 분야의 충청남도 우수 청년농부 총 50인을 선발해 인증패를 수여했다.

대상은 도내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 청년농부 인증은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도내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현재 수립·추진 중인 '청년농부인 유입 및 육성계획'을 알리고 창농하기 좋은 충남을 홍보하고자 마련했다.

▲

▲고소득 24명 ▲새 도전 12명 ▲행복 14명을 선정했다.

도 농업기술원은 선발된 우수 청년농부를 대상으로 스마트팜 국외연수

와 동영상 및 사례집 등 정책 홍보

콘텐츠 제작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충남도 농업기술원 041-635-6151



## 김홍신 작가 고향사랑기부 응원

### "지역 살리는 원류가 되길"

충남도는 작가 김홍신(사진) 씨가 '충남 고향사랑기부제' 동행 응원 캠페인의 일곱 번째 주자로 나서 기부제 활성화를 응원했다고 밝혔다.

충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1월 1일부터 전국 자치단체가 시행 중이며, 개인이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닌 지역에 1인당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

기부자에게는 10만 원까지 전액, 10만 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와 담대품의 혜택을 제공한다.

온라인 기부는 '고향사랑기부(e)음' (<https://ilovegohyang.go.kr/>)'을 통해 할 수 있고, 오프라인 기부는 가까운 농협에서 가능하다.

도는 앞으로도 충남 고향사랑기부제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동행 응원 캠페인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충남 고향사랑기부제 동행 응원 캠페인에는 앞서 배우 강부자 씨와 정홍채 씨, 나태주 시인, 개그우먼 안소미 씨, 소리꾼 장사의 씨, 배우 박순천 씨가 참여한 바 있다.

/새마을공동체과 041-635-3481

# ‘논산 상추’ 대만 수출길 오른다

양상추·로메인 연간 100톤

논산시가 자랑하는 또 하나의 특산물인 상추가 해외 유통시장에서 뛰어난 상품 경쟁력을 인정받아 대만으로의 수출길에 오른다.

시에 따르면 영농조합법인 온체(대표 김영환)가 생산하는 유럽식 포기상추와 광석면 5개 농가가 연합해 설립한 글로벌팜(대표 김민수)이 기른 상추가 대만으로 향한다. 수출 물량은 연간 약 100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5월 9일 오전 부적면에 위치한 영농조합법인 온체 본사에서 선적식이 진행됐으며, 1차 물량인 양상추 1만 1000kg과 로메인 500kg이 더 넓은 시장으로 가는 팔레트에 실렸다. 논산에서 생산된 엽채류가 대만으로 수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만 수입업체 측은 “논산에서 재배

되는 유럽식 상추의 상품성이 현지 외식업체는 물론 소비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대만 수출길에 오르는 대부분의 상추는 현지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의 샐러드용 식재료로 활용된다고 전해졌다.

선적식에 함께한 백성현 시장은 “지역 농업인들의 땀과 지혜가 깃든 논산 상추가 대만 소비자층에게 가치를 인정받고 수출길에 오른다”며 “딸기, 젤갈과 같은 주력 특산물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생품들이 수출 경쟁력을 향상 할 수 있도록 행정적 뒷받침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논산시는 지난 2~3월 베트남과 태국 현지를 방문해 아시아 유통기업과의 파트너십을 공고히 다진 바 있다. 이번 상추 수출입 역시 논산시의 판로확장



로메인·양상추 100톤 대만 수출 선적식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함께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노력이 배경이 됐다. 대만 현지 유통업

자들은 적극적으로 아시아 시장을 노크 중인 논산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엽채류에 관심을 갖고 국내 시장조사를 진행한 바 있으며, 최종적으로 100톤가

량의 수입을 결정했다.

한편, 수출을 주도하는 영농조합법인 온체는 유럽식 포기상추 재배 분야를 선도하며 대형마트·유통사에 작물을 출하 중인 국내 굴지의 기업이다. 또한

광석면 청년농부 다섯 명이 모여 세운 ‘글로벌팜’은 신규 소득작물 개발을 핵심 비전 삼아 글로벌 공급망 조성을 노리는 신생 수출회사다.

/논산시 제공



홍성 산불 이재민 위한 임시주택 설치되고 있다.

## 홍성 산불 이재민 임시주택 입주

27㎡ 규모 조립주택 32동  
싱크대, 냉난방기 등 갖춰  
수도사용료 10월까지 감면

충남 홍성군 서부면 산불 피해 이재민들이 15일부터 임시 주거용 조립주택에 입주한다.

군에 따르면 5월 10일부터 조립주택 설치가 시작됐으며, 18일까지 32동에 대한 설치가 모두 완료될 예정이다.

이재민 31가구(4인 이상 가구 1동 추가)는 오는 15일부터 조립주택에 입주하기로 했다.

조립주택은 27㎡ 규모로 싱크대,

불박이장, 신발장, 냉난방기 등을 갖췄다.

군은 또 산불 피해를 본 서부면 가구의 4월 상수도 사용요금을 감면해 기본요금만 받기로 했다.

이재민이 거주하는 공공임대주택과 조립주택의 수도사용료는 10월까지 감면된다.

산불 피해를 직접적으로 보지 않은 가구도 3월 대비 초과 사용분에 대한 요금은 받지 않는다.

홍성군 관계자는 “이재민들을 이 달까지는 삶의 터전으로 복귀시키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성군 제공



사랑의 효 잔치

가정의 달이자 어버이날인 5월 8일 금산군 부리면에서 효 문화 확산과 계승을 위한 효 잔치가 풍성하게 열렸다.

## 당진 핫플 카페서 농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 판매·참여 문의 잇따라

충남 당진시가 신평면 소재 카페 로드 1950에서 동절기를 제외하고 매주 주말에 열리는 플리마켓에 당진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한다.

당진의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카페 로드 1950에서 열리는 플리마켓은 의류, 도서, 생활용품, 레저용품, 수공예품 외에도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는 장소로 수도권은 물론 전라도권에서도 판매 참여 문의가 잇따르는 장소다.

시는 이곳에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산물과 농산 가공품을 홍보하고 판매해 농가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 프리마켓 운영사와의 실무협의를 거쳐 지난 3월부터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1차로 딸기, 고구마 가공품, 벚꽃 새우, 호박 약과 생산 농가 등이 먼저 판매에 나서 시장성을 확인했으며 이번 달부터는 된장, 고추장, 사과, 블루베리, 포도, 토마토 등 계절에 맞춰 다양한 지역 농산가공품을 홍보·판매한다는 계획이다.

김기창 농식품유통과장은 “카페 로드 1950 광장 플리마켓에서 농산물 직거래 장터가 자리를 잡으면 내년도 합덕역 개통에 맞춰 삼교호 관광지와 합덕제에도 추가로 개최할 예정”이라며 “지역 관광명소 활성화와 농업인 소득 증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산물직거래장터에 참여를 원하는 농업인은 시청 농식품유통과 당진푸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당진시 제공

## 그리운 아버님

### 지구촌 함께해요 다문화가족 충남정착기

한국인 남편을 만나 1년 정도의 연애 끝에 결혼하면서 한국으로 왔다. 한국으로 온 1999년에는 외국인 결혼이주 여성이 많지 않았고 다문화 가정이라는 단어도 없었다. 당연히 다문화센터도 없어 지금은 센터에서 무료로 배울 수 있는 한국어 수업, 취업 교육 등도 개인 돈을 들이야 배울 수 있었다.

때문에 남편 월급의 1/3을 한국어 수업에 써야 했는데 너무 부담스럽고 시댁에 눈치도 보였다. 그리고 생각보다 한국어가 쉽지 않아 한두 달 배우고 나서도 제대로 생활에서 활용하지 못했다. 스스로에게 크게 실망했고 저를 도와주지 않은 남편도 원망스러웠다.

중국어에는 존댓말과 반말이 없다. 하지만 한국어는 문법이 복잡하고 높임말, 평 말, 낮춤말이 다 달라 말을 한번 잘못하면 상대방의 기분을 나쁘게 할 수 있다. 결혼하기 전에는 남편이랑 영어로 연애했고 소통이 별문제가 없었지만 결혼하고 나서 시부모님과는 한국어로 소통해야 하니까 아주 힘들었다. 내 나름 대로 노력했지만, 남편으로서는 내 노력이 부족해 보였는지 다툼이 잦아졌다.

아무도 모르는 낯선 땅에서 말도



십화/맹주석

안 통하고 믿었던 남편마저 도움이 안 되자 결혼에 대해 많이 후회했다. 그때 나에게 용기를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시아버님이다. 저희 시아버님은 평범한 목수셨다. 암으로 돌아가신 지 벌써 10년이 지났지만 나는 지금도 우리 아버님을 그리워하고 있다.

우리 아버님은 어린 시절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학교에 많이 못 다녔다. 어린 나이에 사회에 나와 여러 가지 일을 해 보고 나중에 목공 기술을 배워 목수로 한 식구를 먹여 살렸다. 내가 아버님, 어머님을 처음 만났을 때 아버님은 저에게 자신이 아들만 3명 있고 딸이 없어서 한이 되지만 이제부터 저를 딸로 생각하고 받아주시겠다 밀하셨고 진짜

로 이 약속을 지키셨다. 내가 한국 말을 실수하고 남편이나 어머님께 혼냈을 때 아버님은 항상 “괜찮다. 잘하고 있다. 천천히 배워도 된다”고 위로를 해 주셨다. 또 요리를 못해 음식을 망쳤을 때도 아버님은 “괜찮다. 맛있다. 우리 며느리 최고다”고 칭찬해주었다.

남편 출장 때문에 중국에 갔을 때 아버님, 어머님께 편지를 썼다. 손님이 집에 놀러 올 때마다 아버님은 그들에게 편지를 보여주며 자랑하셨다. 며느리가 똑똑하고 한국말도 이제 잘한다고 말씀하셨다. 제가 아버님께 맛있는 것 사드린다고 말하면 아버님이 항상 “네가 좋아하는 것 먹으려 가자”고 하셨다. 선물을 사드린다고 말씀드리면 아버님은 항상 “신경 쓰지 말고 너희 잘살았으면 된다”고 말씀하셨다.

우리 아버님은 그냥 평범한 한 가정의 가장이다. 아버님은 세상의 모두 부모님처럼 자기 자식을 사랑한다. 그뿐만 아니라 며느리인 나까지 사랑해주시고 항상 내 편을 들어주셨다.

아버지가 세상에 떠나신 지 10년이 지났지만 내가 힘들었을 때 아버님이 “우리 며느리 잘한다. 따봉!”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모습을 회상하면 힘이 다시 나는 것 같다. 아버님, 잘 지켜보세요. 저희는 여기서 열심히 행복하게 잘살아 보겠습니다.

/이아남(중국)

# 제17회 서천 자연산 광어·도미 축제 ‘짜릿한 손 맛 느껴요’

마량진항 일원서 5월 28일까지  
광어 맨손 잡기 및 낚시 체험 등

‘제17회 서천 자연산 광어·도미 축제’가 5월 13일 개최됐다. 축제는 28일까지 서천군 마량진항 일원에서 진행된다.

5월 중·하순 서천의 앞바다에서는 자연산 광어와 도미 잡이가 한창이다. 성질 급한 자연산 광어는 운송 과정에서 신선도 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도시민을 포구로 초대하여 자연산 광어로 축제를 연다.

이번 축제에서는 광어·도미 요리 부스와 활어 판매장이 운영되며 광어 맨손 잡기와 낚시 체험·보물찾기 등 각종 체험 프로그램도 즐길 수 있다.

특히, 축제기간 동안 신선한 광어를 1kg당 4만2000원에 회와 매운탕으로 즐길 수 있으며, 광어·도미 활어 판매

장에서는 1kg당 2만2000원에 회를 진공 포장해 판매한다.

관광객들에게 인기있는 광어 맨손 잡기 체험은 주말 오전 11시, 오후 1시, 오후 3시 총 3회에 걸쳐 회당 선착순 70명, 광어 낚시 체험은 주말 오전 10시, 오후 2시 총 2회에 걸쳐 회당 선착순 10명이 참여 가능하며, 체험비는 각각 1만 5천원이다.

이외에도 체험 시간에 맞춰 ‘어부아저씨의 내맘대로 깜짝 경매’가 진행되며, 성경전래지 기념공원에서는 광어 보물찾기가 펼쳐진다.

강구영 위원장은 “예년에 비해 광어 맨손 잡기 및 낚시 체험을 즐길 수 있도록 체험 횟수 및 참여 인원수 등을 늘려 운영할 예정”이라며, “이번 축제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자연산 광어·도미를 맘껏 즐기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천군 제공



광어 맨손 잡기 체험 모습.

## 부여군, ‘2023 백마강 달밤야시장’ 개장

매주 금·토 오후 6~11시  
부여시장 광장에서 열려  
먹거리, 즐길거리 등 다채

충남 부여군(군수 박정현)이 5월 13일 ‘2023 백마강 달밤야시장(부여야시장)’을 정식 개장했다.

2023 백마강 달밤야시장은 12일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오는 7월 15일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6시부터 밤 11시까지 부여시장 광장에서 열린다.

13일 개장식에는 관내 동아리단체 공연 및 다양한 축하공연과 부여군민에게 야시장의 시작을 알리는 불꽃놀이를 선보였다.

올해는 백마강 달밤야시장에서만 맛볼 수 있는 다양한 길거리음식 25여종과 부여군에 체험프로그램, 어린이를 위한 놀이기구 등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먹거리, 놀거리, 즐길거리를 다채롭게 준비했다.

군 관계자는 “5월은 가정의 달인 만큼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공



지난해 펼쳐진 백마강 달밤야시장 전경.

연과 문화체험을 마련했고 특히 상인들의 위생교육과 안전교육을 통해 안전한 축제를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어 “야시장을 통해 부여군 공동체가 회복할 수 있는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부여군 백마강 달밤야시장에 관한

문의는 부여군 지역 공동체 활성화 재단 상권 활성화 지원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백마강 달밤야시장은 지난 2014년 ‘전통시장 야시장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2016년도 처음 개장한 이후 매년 꾸준히 열리는 충청권 최대 야시장이다.

/부여군 제공

## ‘청양이’ 귀여움에 매료

### 국제 관광전서 우수 캐릭터상

충남 청양군 관광 캐릭터 ‘청양이’가 국제관광전에 참가해 귀여운 매력을 한껏 발산하면서 높은 인기를 끌었다.

‘청양이’는 5월 4일부터 7일까지 서울 코엑스 C홀에서 열린 서울 국제관광전에 나가 일본 구마모토현의 ‘쿠마몬’, 경남 진주시의 ‘하모’, 울산 중구의 ‘울산큰애기’와 같은 유명 캐릭터와 나란히 지역의 관광자원을 널리 알렸다.

‘청양이’가 행사장에 등장하자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어 악수와 포옹 세례를 퍼부으며 사진 촬영에 바빴다. 또 ‘쇼 미 더 마스코트’ 행사에 참여해 우수 캐릭터상을 수상했고 청양의 특산물·관광지 관련 퀴즈를 내면서 관람객들과 만남의 기쁨을 나눴다.

특히 퀴즈쇼 전후로 꿈 공연단과 함께하는 국내외 캐릭터 퍼레이드에 참여해 다양한 음악에 맞춰 춤을 추면서 ‘청양이’ 특유의 귀여운 매력을

뽐내 박수를 받았다.

군 관계자는 “‘청양이’와 우리 군의 관광자원, 특산물을 다양하게 홍보할 수 있었다”라며 “지자체 캐릭터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쿠마몬’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브랜드 가치를 높였다는 의미가 크다”라고 말했다.

한편 ‘청양이’는 2022년 우리 동네 캐릭터 대상 본선 진출, 2편의 뮤직비디오 공개, K-POP 댄스 커버로 유명한 유튜버 ‘아트비트’와 스케치 코미디 유튜버 ‘쉬캐치’ 콜라보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이모티콘 시리즈와 다양한 굿즈를 발매하고 있어 전국적으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청양군 제공



청양이

## 무령왕과 왕비의 화려한 목관, 그 속에 담긴 의미



### 무령왕 서거·성왕 즉위 1500주년, 찬란한 백제 역사 속으로

#### 13) 목관

여러분, 무령왕릉 전시관을 둘러보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아, 무령왕과 왕비의 시신을 모신 관이 안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저쪽에 있는 나무관 보이시나요? 저것이 바로 무령왕과 왕비의 시신을 모신 관의 흔적입니다.

본래 무령왕릉 목관은 화려했어요. 국립공주박물관에 가시면, 복원된 무령왕과 왕비의 목관을 만날 수 있답니다. 복원된 목관을 보시면, 못 하나에 은과 금을 장식하였고, 목관의 측면에 달리는 관 고리도 금이나 은을 씌웠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길

이 2.5cm에 수백 킬로그램이나 되는 웅장한 목관에 온통 검은 칠을 하여서 금색과 은색의 금속으로 치장한 모습을 더욱 빛나게 했답니다. 정말 아름답죠?

이 목관에는 비밀이 하나 숨어있답니다. 어? 어떻게 아셨어요? 다 아시는 이야기인가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왕과 왕비의 목관을 만든 나무는 일본에서만 자라는 ‘금송(金松)’입니다. 금송은 햇빛이 솔잎에 비칠 때 찬란한 황금빛을 띤다고 하여 불은 이름인데, 곧게 잘 자랄 뿐만 아니라 내수성과 내습성이 좋아

일본에서는 왕궁 등의 건축 자재로 이용되었으며, 왕과 귀족층의 목관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무령왕릉에서 일본 아니 당시 왜(倭)와 관련된 유물을 찾아볼까요? 잘 모르겠다고요? 그럼, 저 충나미가 알려드릴게요. 먼저 청동거울입니다. 국보 지정된 ‘의자손수대경(宜子孫獸帶鏡)’인데요. 이 거울과 똑같은 거울이 일본 군마현(群馬縣) 간논야마(觀音山)고 분에서 확인되었답니다. 일본 오사카부(大阪府) 다카이다야마(高井田山) 고분에서는 무령왕릉의 청동 다리미와 동일한 형태의 것이 출토되었어요. 이를 통해 백제와 왜의 교류 관계를 알 수 있어요.

무령왕은 어디에서 태어났죠? 아, 잊지 않으셨구나. 맞아요. 가카라시



목관

마(加唐島)에서 태어났죠. 그래서인지 무령왕은 왜와 관련된 이야기가 많아요. 와카야마현(和歌山縣) 스다하치만(隅田八幡) 신사에 ‘인물화상경’이란 청동거울이 있는데, 무령왕(사마)이 남제왕(계이타이일왕)의 장수를 기원하기 위해 거울을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속일본기(續日本記)』에는 간무(桓武)일왕의 어머니가 백제 무령왕의 자손이라

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만큼 무령왕 당시 백제는 왜와 친밀한 교류 관계를 지녔답니다.

1500년 전 평화로웠던 한일관계는 임진왜란과 경술국치와 같은 정복관계로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힘의 논리는 정당화할 수 없어요. 평화는 힘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이해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해요. 미국 외교관 헨리 키신저는 “한나라가 직면하는 가장 어려운 도전 중의 하나는 과거의 교훈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일이다”라고 했답니다. 저 충나미는 여러분이 1500년 무령왕의 역사 교훈과 경술국치의 역사교훈을 정확히 해석하는 역사의 눈을 가졌으면 합니다.

/이경복 충남역사문화연구원  
내포문화진흥센터장



히로시마 원자폭탄 투하후 버섯구름.



조선총독부 항복조인식 장면.

1945년 8월 소련의 침공으로 한반도 북부 일부(함경도 청진 등)를 실질적으로 상실하였고 이후 여운형 등과 협의하여 건국준비 위원회를 완전히 설립하도록 하였지만, 군권은 여전히 가지고 있었다. 8월 15일 천황의 항복 선언과 한반도의 해방으로 한반도의 북반부는 소련군에 의해서 항복이 진행되고 9월 미군이 서울에 진주하게 되자 최후의 수단으로 할복을 시도하려 했으나 실패하고 9월 9일 결국 존 리드 하지 중장이 주도하였던 항복 조인식장에 나와서 항복 문서에 조인하게 되었다.

## 조선의 해방, 일본의 패망 “무조건 항복합니다”

### 격동의 충남 100년

일제하 마지막 충남지사 박재홍



일제강점기 박재홍 도지사.  
/충남역사문화연구원

를 했었는데 그 당시 상황을 이렇게 말했다.

“총독부에서 내일 정오에 천황이 라디오 방송을 하니 들으라는 전화를 받고 드디어 일본이 항복을 하고 우리 나라도 해방이 되는구나 하는 예감을 가졌습니다. 이튿날 그러니까 8월 15일 정오, 나는 지사실에서 모두 내보내고 혼자서 라디오를 켰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측한 대로 일본은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박 지사는 즉시 도청 간부들을 불러 산하 직원들에게 미군이 진주할 때까지 자리를 이탈하지 말고 맡은 임무에 충실히 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경리 관계를 잘 정리하도록 강조했다. 정말 갑작스럽게 찾아온 8·15 해방에 충남도청 한국인 직원들은 매우 혼란 스러울 수 밖에 없었다. 거리에는 일본 경찰이 있고 일본군들이 그대로 주둔해 있는 상황에서 해방을 실감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때 충남도청 광공부장으로 있던 현석호(玄錫虎)씨가 한국인 직원들의 리더로 떠올랐다. 그는 훗날 장면총리시 국방부 장관, 내무부 장관을 하며 4·19후의 혼란을 수습한 인물이다.

현석호씨는 “해방이 되었는데도 만세 한번 못 불어서 되겠느냐며 일단 서울에 가서 정세를 파악하고 오겠다”며 서울로 올라갔다. 이를 후 서울에서 돌아온 현석호씨는 충남도청에 근무하는 한국인 직원들을 도청 광장에 모이게 했다. 그리고는 “확실히 일본은 항복했고 우리는 해방 되었다. 여러분, 모두 마음 놓고 가슴 후련히 만세를 외치자”고 하며 준비한 태극기를 나누어 주었다. 한국인 직원들은 현석호씨의 선창에 따라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어떤 직원들은 너무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기도 했고 또는 목이 메어 제대로 소리를 내지 못하는 직원도 있었다.

그래도 만세를 외치는 함성은 도청 주변에 울려 퍼졌고 박재홍 충남지사와 일본인 직원들은 창문으로 이 광경을 물끄러미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미 그들은 풀이 죽어 만세를 말리는 사람도 없었고 심지어 일본 경찰들 까지도 팔짱을 끼고 구경할 뿐 감히 강제로 해산을 시키지 않았다.

박재홍 지사는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회고했다. “나는 빨리 도지사를 내려놓고 충남도청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죠. 그런데 미군정청에서 미군이 도청을 접수할 때까지 그대로 자리를 지키라는 명령이 떨어져 끔찍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충남도청 지방과장으로 있던 아끼야마라는 사람이 집에서 자살을 한 사건이 발생했고 이 때문에 일본인 직원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이번에는 대전지방 검찰청 검사장으로 있던 오끼라는 사람이 그의 집무실에서 목을 매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죠. 이렇게 되자 대전에 있던 일본인 거류민들까지



현석호 충남도청 광공부장.  
/연합 아카이브(<https://y-archive.com>)

1944년 충청남도 광공부장으로 임명되어 광산 및 공업 등 전쟁 수행에 필요한 군수 사무를 담당했다. 해방 이후 3·5대 국회의원 민주당 조직부장, 국방장관 등을 지낸 정치인이다.

미군정기 대전 충남도청사 미군정청 단체사진.

/대전근현대사진관

제2차 세계대전이 다 끝나갈 무렵 1945년 미국은 일본에 두 개의 원자폭탄을 투하했는데, 8월 6일 히로시마에 한 개의 원자폭탄을 떨어뜨렸고 8월 9일 나가사키시에 나머지 한 개의 원자폭탄을 떨어뜨렸다. 원자폭탄 투하가 결정된 히로시마는 당시 일본군 제2사령부이면서 통신 센터이자 병참 기지였으므로, 일본의 군사상으로 중요한 근거지였다. 1945년 8월 15일 일본 천황이 항복을 선언했다.

해방 이후 충남도청사는 미군정청으로 사용됐다. 당시 박재홍 충남도지사는 광복 후 미군정관 월리엄 카프(W.Karp) 대령에게 도정을 인수인계하고 도청을 떠났다. 박재홍은 일제강점기 산업부 상공과 과장, 충북지사, 충남지사 등을 역임한 관료로 친일반민족행위자이다.

자료조사/이상현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충남역사박물관 선임연구원

1945년 8월 15일 日 항복 선언  
박재홍, 총독부 전화에 해방 예감  
美 진주까지 도지사 자리 지켜

식량부족 사회문제 민심 동요에  
일본군 사령부 찾아 식량 확보도

1945년 8월 6일, 일본 히로시마에 미군의 원자폭탄이 떨어지고 8월 8일에는 소련이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는 등 전세가 급박하게 전개되기 시작했다. 그러자 일본은 서울 용산에 있던 군사령부를 대전으로 옮기고 미군과의 결전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지금도 대전 인근 보문산과 식장산에는 그때 일본군이 파놓은 진지의 흔적이 남아 있다. 이런 가운데 8월 14일 조선총독부에서 박재홍(朴在鴻) 충남지사에게 전화가 걸려 왔다.

박재홍은 일본 식민지에서의 마지막 충남지사. 논산 상월면 출신인 박 지사는 충북지사로 있다가 충남지사로 부임한 지 50일도 안되었다. 필자는 40년전 그가 생존해 있을 때 직접 인터뷰

쇼크를 받아 본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또한 일본인 직원들 조차 미군이 오기도 전에 귀국하는 사례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 무렵 가장 큰 사회문제는 식량부족이었다. 대전 시내는 물론, 충남도 내 어느 곳에도 쌀을 살 수가 없었다. 그러니 민심이 동요하기 시작했다.

박재홍 지사는 도청 호시무라라고 하는 재무부장을 불러 대전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 사령부를 방문하여 군량미를 차용해 오도록 했다. 하지만 재무부장이 자기로서는 할 수 없다고 꼼무니를 뺐다. 이미 도지사의 영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다.

그래서 박재홍 지사가 일본군 사령부를 직접 방문하여 연대장과 담판을 벌였다. “당신네 전쟁도 중요 하지만 우리 주민들이 굶어 죽어서야 되겠습니까? 지금 폭동이 일어날 기세입니다” 그자 연대장은 쌀 300가마를 차용형식으로 내놓았다. 어차피 일본군으로서는 남는 군량미였고 폐망하여 본국으로 가져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했음에도 미군이 대전에 진주하고 도청을 접수한 것은 52일이 지난 10월 7일이었다. 그리고 미 육군 대령 카프가 미군정 하의 충남도지사가 되었다. 카프 대령은 충남지사이면서 대전 주둔 미군 사령관이었기

때문에 우선 급한 것이 일본군의 무장해제 업무였다. 그래서 도지사 업무 인수인계는 다소 지연되었는데 카프 대령은 부지사실을 사용하고 박재홍 지사는 그 직이 끝났음에도 도지사실을 그대로 사용하게 했다. 뿐만 아니라 도지사 관사까지도 박 지사에게 양보하고 자신은 부대에서 출·퇴근을 했다. 그리고 만약 있을지도 모르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 지사 관사에 미군 현병 2명을 고정 배치했다.

8월 15일 해방이 되고 10월 7일 미군이 충남도 청을 접수했음에도 박재홍 마지막 충남지사와 미군정 카프지사 사이에 인수인계가 끝난 것은 11월 1일이 되어서였다. 인계 인수가 끝나자 일제하의 마지막 충남지사 박재홍은 몇몇 직원들의 전송을 받으며 도청을 떠났다. 미군정 지사 카프 대령은 현관까지 나와서 박재홍과 악수를 하며 작별을 고했다.

이렇게 하여 이 땅을 거의 반세기 동안 지배해온 일본 식민 통제는 막을 내렸다.



변평섭  
전 충남역사문화연구원장

##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

#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하는 풍수해보험

### 풍수해보험이란?

정부가 보험료를 지원하고 **국민 누구나 혜택받는 든든한 자연재해보험**입니다.

### 대상 재해



### 풍수해보험 가입 대상은?

**가입대상** 주택, 온실, 소상공인(상가, 공장)

**대상재해** 8대 자연재해\*

\*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 가입 안내

#### 어디서나

- ① 풍수해보험 판매 민간보험사
- ② 전국 지자체 재난관리부서
- ③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 ④ 중소기업중앙회(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회원) 02-6900-3240

#### 가입문의

- DB손해보험 02-2100-5103
- 현대해상화재보험 02-2100-5104
- SAMSUNG 삼성화재해상보험 02-2100-5105
- KB손해보험 02-2100-5106
- NH농협손해보험 02-2100-5107
- 한화손해보험 02-2100-0164
- meritz 메리츠화재 02-2100-0165

### 풍수해보험금과 재난지원금 비교

재난지원금		풍수해보험	
면적에 관계없이 최소 복구비만 정액 지급		면적이 증가할수록 보험금 증가	
재난지원금		풍수해보험	
소유자	세입자	소유자	세입자
전 파	1,600만원	-	7,200만원 720만원
전반파	-	-	5,040만원 504만원
반 파	800만원	-	3,600만원 360만원
소 파	100만원 (지진만 해당)	-	1,800만원 180만원
침 수	200만원 (실거주 시)	200만원	535만원 535만원

(주택 면적 80m<sup>2</sup>, 90% 보상 기준)



### 연간 보험료 & 보험금 예시

#### 주택·온실·소상공인의 현실적 보상을 통한 조기 생활안정 기여!

주택(80m <sup>2</sup> 기준, 90% 보장)			(단위 : 원)
구분	연간보험료	보험금	
소유자	총액 43,900 정부지원 30,730 <b>자부담 13,170</b>	7천 2백만원	
소유자 (기초생활수급자· 재해취약지역)	총액 43,900 정부지원 38,200 <b>자부담 5,700</b>		

온실(철재파이프(A형) 하우스 90% 보장, 1천m <sup>2</sup> 기준)			(단위 : 원)
구분	연간보험료	보험금	
소유자	총액 273,000 정부지원 191,100 <b>자부담 81,900</b>	868만원	

상가			(단위 : 원)
구분	연간보험료	보험금	
소유자	총액 129,200 정부지원 90,400 <b>자부담 38,800</b>	1억원	
임차인 (재고자산)	총액 71,200 정부지원 49,800 <b>자부담 21,400</b>	5천만원	

공장			(단위 : 원)
구분	연간보험료	보험금	
소유자	총액 162,900 정부지원 114,000 <b>자부담 48,900</b>	1억 5천만원	
임차인 (재고자산)	총액 56,700 정부지원 39,600 <b>자부담 17,100</b>	5천만원	

\* 보험료는 가입 지역과 가입 면적에 따라 차이가 나며,  
지자체별 재정 여건에 따라 자부담 보험료의 추가지원 가능합니다.

### 풍수해보험료 정부지원은?

▶ 풍수해 및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고,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합니다.

✓ (주택) : 일반 70~ , 차상위계층 77.5~ ,  
기초생활수급자 및 재해취약지역 86.5%~

✓ (온실 및 소상공인 상가·공장) : 70%~

지자체 추가 지원 시 최대 92%까지 지원합니다.

▶ 일부 저소득층에게 풍수해보험료를 전액 지원합니다.

풍수해보험금을  
보상받은 이력이  
있는 주택

풍수해 피해로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주택

재해취약지역의  
풍수해보험 가입촉진  
계획 대상인 주택

저소득층이  
실제 거주하여

-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나
- ②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보험에 가입할 경우입니다.

\* 지자체를 통합 단체가입(풍수해보험 상품 II)에 해당하며, 전액지원 여부는 해당 지자체에서 정합니다.

### 보험금 지급 사례

많은 국민들이 풍수해보험 혜택으로  
가족의 행복을 지켰어요!

#### 주택

지급보험금	178,200,000원
피해내용	'20. 8월 집중호우로 주택전파 180m <sup>2</sup>
납입보험료 (연간)	정부지원 32,900원
	자부담 29,600원



※ 보험 미가입 시 받는 재난지원금 : 16,000,000원

#### 소상공인

지급보험금	100,000,000원
피해내용	'21. 7월 집중호우로 상가 침수 1,300m <sup>2</sup>
납입보험료 (연간)	정부지원 181,200원
	자부담 53,800원



※ 보험 미가입 시 받는 재난지원금 : 없음



# 성인지 정책 우수사례를 소개합니다.

## 교과서 속 성차별 삽화 개선 [충남교육청, 2019]

### 사업 내용

충남교육청에서 개발해 2020년부터 충남도 내 초등학생 1, 4학년이 사용할 교과서를 성인지 관점에서 분석



- 등장인물 구성의 성별 불균형
- 성역할 고정관념 및 편견 존재
- 가족의 다양성에 대한 인식 부족

### 개선내용

교재의 삽화, 내용 등 성별 고정관념, 옷차림에 대한 편견 등을 개선



- 등장인물의 성별균형, 성역할 고정관념, 성별 옷차림에 대한 편견 개선

자료제공 / 충남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이경하 연구위원

그래픽 / 박건부

### 추억의 끝말잇기

끝말잇기란 앞에 있는 2월단어의 마지막 글자로 시작되는 단어를 말하여 이어가는 게임이다. 예전에 사용했던 단어를 사용함으로서 기억을 회상해볼 수 있고, 이 게임의 규칙을 기억하면서 다양한 단어를 생각함으로서 기억력과 집중력, 문제해결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다음은 세 글자 끝말잇기의 일부입니다. 아래 <보기>의 단어 중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골라서 넣어주세요.



비단길 거북선 대나무 거북이 대통령 거래소  
대들보 비단침 비둘기 거미줄 대각선 비구니

### 충남광역치매센터와 함께하는 치매예방 두뇌훈련 퀴즈

난이도 - 중하 ★★★☆☆

#### 증진영역

집중력, 기억력  
문제 해결력

#### 소요시간

10분 내외

#### 일상생활 적용 영역

계절에 맞는 옷 입기, 계란후라이 부칠 때 뒤집개를  
쓸지 국자를 쓸지, 국을 떠먹을 때 수저를 쓸지 젓가락을 쓸지

# 건양대학교 작업치료학과 실습생 홍유정 학생이 제작하였습니다.  
# 백석대학교 작업치료학과 염희영 교수님께 겸수받은 내용입니다.

[Korean] '겨울' '국' '국' : 정윤

### 일자리 정보

\*문의 - 충청남도일자리종합센터 ☎ 041-330-4972

지역	사업장	직종	인원	전화	급여	지역	사업장	직종	인원	전화	급여
천안	영농조합법인하니드림	기타 시설작물 재배업	3명	010-2216-93	시급 9,620원 이상	논산	주식회사감동란	식품 분야 단순 종사원	3명	041-741-2116	연 3,100만원 이상
천안	디에스틸주식회사	금속제품 도장기 조작원	4명	041-557-8490	시급 9,620원 이상	보령	주식회사대문건설	경리 사무원	1명	041-562-0279	연 3,000만원 이상
천안	(주)리버모터스	사무 보조원	1명	041-568-6780	월 250만원 이상	보령	이영건설(주)	굴삭기 운전원	2명	041-933-4593	월 210만원 이상
천안	(주)바른관리	빌딩 관리소장	1명	010-3218-3205	월 250만원 이상	보령	대흥우드산업(주)	목재 가공기계	1명	041-932-9804	월 201만원 이상
아산	제이에스피	제조 단순 종사원	4명	070-4355-0053	시급 9,620원 이상	보령	(주)어울림	금속 공작기계 조작원	1명	041-933-1596	월 300만원 이상
아산	유한회사케이엘티에스	총무 및 일반 사무원	3명	041-531-7603	월 210만원 이상	계룡	효나눔노인복지센터	재가 요양보호사	1명	031-986-4871	시급 12,300원 이상
아산	주식회사엔텍	연삭기 및 연마기 조작원	2명	041-567-0830	월 300만원 이상	계룡	계룡대체력단련장	한식 조리사	1명	042-550-7613	월 230만원 이상
아산	(주)왕건	식품 분야 단순 종사원	4명	041-425-0045	월 201만원 이상	계룡	올바른환경	재활용품 및 폐기물 수거원	1명	042-300-1113	월 250만원 이상
당진	채운요양원	환경 미화원	1명	041-358-9982	월 201만원 이상	계룡	사단법인 안전보건기술인협회	기타 기술·기능 강사	1명	042-826-2496	월 350만원 이상
당진	라온기업(주)	제조 단순 종사원	2명	041-351-4771	연 4,100만원 이상	홍성	산성농장	농업 단순 종사원	2명	010-5307-3114	월 210만원 이상
당진	당진사랑마루	사회복지사	1명	041-352-3275	월 201만원 이상	홍성	(주)제이엠산업구항점	총무 및 일반 사무원	1명	070-4949-9995	연 3,000만원 이상
당진	(주)승진테크	제조 단순 종사원	10명	041-351-7646	월 250만원 이상	예산	극동에이치팜	기타 식품가공 종사원	5명	041-331-3371	시급 11,005원 이상
서산	펜오키드	원예작물 재배원	3명	010-2475-2928	월 202만원 이상	예산	(주)리빙키친	프레스기 및 절단기 조작원	4명	041-338-0504	연 3,000만원 이상
서산	(주)유니에스	하역·적재 종사원	1명	070-8680-9534	연 3,800만원 이상	태안	대진산업(주)	화물차·특수차 운전원	1명	041-675-0731	월 350만원 이상
서산	사회복지법인 서림복지원	사업체 구내식당 급식 조리사	2명	041-663-8684	월 201만원 이상	태안	(주)호반호텔앤리조트	조경 기술자	1명	041-671-7050	연 4,000만원 이상
서산	주식회사 중평건설	토목시공 기술자	3명	041-668-6678	연 4,000만원 이상	서천	주식회사제이케이전기	내선전기공	2명	041-956-7021	월 320만원 이상
공주	성신산업	금속가공 기계 조작원	10명	041-544-4527	시급 9,620원 이상	서천	(주)서래원	경리 사무원	1명	041-9531-8789	월 230만원 이상
공주	노랑오리 농업회사법인(주)	식품 분야 단순 종사원	3명	041-841-6200	월 201만원 이상	부여	(주)두잉씨엔에스	빌딩 전기관리원	1명	041-939-1119	연 2,800만원 이상
공주	공주시청소년쉼터	사회복지사	1명	041-853-1337	월 222만원 이상	부여	주식회사부여관광	선장, 항해사 및 도선사	1명	041-408-8777	월 320만원 이상
공주	로뎀주간보호센터	영양사	1명	041-855-3243	월 210만원 이상	금산	유닉스	기구 제조·수리원	2명	010-6222-2154	월 201만원 이상
논산	성심실버케어	간호조무사	1명	041-980-1995	월 202만원 이상	금산	방원한방타운아파트	아파트 관리소장	1명	041-751-3239	월 301만원 이상
논산	태경상사	배송·납품 운전원	5명	041-734-1998	월 250만원 이상	청양	삼우컴퍼니주식회사	제조·단순 종사원	2명	010-2962-0090	월 320만원 이상
논산	(주)보고신약 논산공장	음료 제조기계 조작원	5명	041-733-3991	연 2,500만원 이상	청양	엔에이치산업주식회사	건축시공 기술자	3명	041-944-1713	연 3,500만원 이상

# 2023.5 문화 달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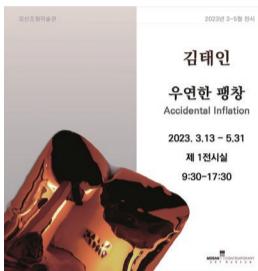
일	월	화	수	목	금	토
---	---	---	---	---	---	---


**이구에나(이구역의 예술가는 나아나)  
『FLOWER DANCE』 전시**

기간: 2023.03.29 ~ 2023.05.16  
장소: 당림미술관  
비용: 무료  
문의: 041-543-6969


**김태인 전시회**

기간: 2023.03.13 ~ 2023.05.31  
장소: 제1전시실  
시간: 09:30  
비용: 무료  
문의: 041-933-8100



17

**명한 시간에 보는 명화 속 인문학 展**

기간: 2023.05.17 ~ 2023.05.31  
장소: 서산시문화회관 전시실  
비용: 무료  
문의: 041-419-7000


**연극 <비누향기>**

기간: 2023.05.17 ~ 2023.05.19  
장소: 서산시문화회관 소공연장  
시간: 19:30  
비용: 전석 10,000원  
대상: 12세 이상  
문의: 041-661-8023



19

**아카펠라 그룹 엑시트(EXIT) Disney Medley**

기간: 2023.05.19  
장소: 당진문화예의전당 [대공연장]  
시간: 19:30  
비용: P석 3만원, R석 2만원, S석 1만원  
대상: 8세 이상(초등학생 이상) 입장 가능  
문의: 041-350-29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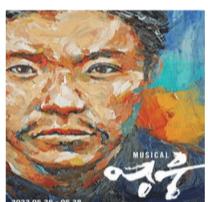

**추억과 감동의 디너콘서트  
<당신에게 드리는 선물>**

기간: 2023.05.19  
장소: 복합문화공간 모나무루 컴플렉스홀  
시간: 18:00  
비용: 150,000  
문의: 041-582-1004

21

**번개맨 뮤지컬 <우주최강 번개삼총사>**

기간: 2023.05.20 ~ 2023.05.21  
장소: 당진문화예의전당 [대공연장]  
시간: 11:00  
비용: R석 66,000원, S석 33,000원  
대상: 24개월 이상 관람 가능  
문의: 041-350-2911



22

**당진챔버 제11회 정기연주회  
<이탈리아로 여행떠나요>**

기간: 2023.05.22  
장소: 당진문화예의전당 [대공연장]  
시간: 19:30  
비용: 무료  
대상: 8세 이상  
문의: 041-350-2911

24

**현남매 트로트 콘서트  
<박현빈, 윤수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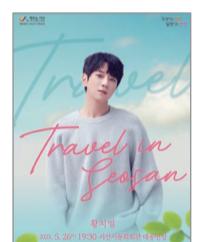
기간: 2023.05.25  
장소: 당진문화예의전당 [대공연장]  
시간: 19:30  
비용: P석 7만원, R석 5만원, S석 3만원  
대상: 8세 이상(초등학생 이상)  
문의: 041-350-2911



26

**다원예술 <황치열 Travel in seosan >**

기간: 2023.05.26  
장소: 서산시문화회관 대공연장  
시간: 19:30  
비용: S석 40,000원 / A석 30,000원  
대상: 초등학생 이상  
문의: 041-661-8023



28

29

**어린이체험학습뮤지컬 <틀려도 괜찮아>**

기간: 2023.05.29  
장소: 당진문화예의전당 [대공연장]  
비용: 전석 60,000원  
대상: 24개월 이상 관람 가능  
문의: 041-350-2911



30 ~ 31

**천안시립합창단 제 90회 정기연주회**

기간: 2023.05.30  
장소: 천안예술의전당 [대공연장]  
시간: 19:30  
비용: 전석 8,000원  
대상: 7세 이상  
문의: 1566-0155

**해설이 있는 11시콘서트 5월  
<바이올리니스트 박수예>**

기간: 2023.05.31  
장소: 천안예술의전당 [소공연장]  
시간: 11:00  
비용: 전석 1만원  
문의: 1566-0155



## 정신승리의 슬픈 자화상

많지 않을 것이다.

소설 아Q정전에서 주인공 아Q는 농촌 마을에 사는 가난한 최하층 계급으로 사람들에게 매일 갑질을 당하는 힘겹고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아Q는 늘 즐겁고 행복하다. 어떻게 행복할 수 있었을까? 아Q의 행복 비결은 정신승리이다. 소설 속에서는 정신승리를 단계별로 소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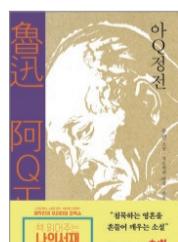
아Q는 동네 건달들과 시비를 불었다. 이때 아Q는 속으로 '아들놈한테 맞은 셈 치지.'라고 생각을 한다. 이것이 아Q의 정신승리법 1단계인 나를 높이고 상대를 낮추는 것이다. 저련 녀석들이랑 내가 상대해서 뭐하지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건달들이 아Q의 정신승리를 눈치채고 정신승리 1단계가 통하지 않는 상황이 왔다. 이때 아Q는 '이건 자식이 아비를 때리는게 아니라 사람이 짐승을 때리는 거야'

라고 생각한다. 아Q의 정신승리법 2단계인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것이다.

어느 날 아Q가 도박에서 큰돈을 따게 된다. 하지만 오늘도 다른 사람과 싸움이 나고 결국 돈마저 다 털리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이때 아Q는 자기 뺨을 힘껏 때리게 된다. 정신승리법 3단계로 자아를 분리하는 것이다. 때린 사람은 자기이고 맞은 사람을 또 다른 자기인 것처럼 여겨서 마치 자기가 다른 사람을 때린 것처럼 느끼게 되는 것이다.

아Q는 모욕을 당해도 정신승리법을 통해 자기합리화를 하고 사소한 일들을 중요하게 받아들인다. 아Q의 생각의 시야가 좁기 때문이다. 작가는 생각하지 않는 아Q를 통해 우리에게 높고 멀리 보는 시야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있다.

/충남도서관 도서관정책과 한아름 사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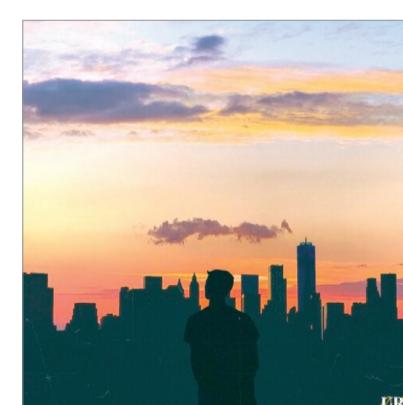
**사서들의 서재**

**아Q정전/루쉰/문학동네/2011**

정신승리 : 경기나 경합에서 겨루어 패배하였으나 자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자신은 지지 않았다고 정당화하는 것을 이르는 말. 국립국어원에서 정의한 뜻이다. 실생활에서 널리 쓰이는 단어이지만 이 단어가 사실은 1922년에 집필된 소설인 아Q정전에서 처음 등장한 단어라는 걸 아는 사람은

아니라 사람이 짐승을 때리는 거야



한은진

●앨범  
[시간의 조각\_URI] 발매

## ●수상

2018 - CJB 청주 청원 생명가요제 금상  
2019 - 보령 마드가요제 은상  
2020 - 금산 '금지가요' 가요제 우수상

## ●공연

유리상자 청춘별곡 콘서트 게스트 참여  
2020 - 아산 문화재단 '소소한 콘서트'  
2021 - 충남문화재단 '작은음악회' 공연  
2022 - 잠자는 무대기상 프로젝트 공연

## ●유튜브 주소

<https://youtube.com/channel/UCQI3T2MhF9KxjBgPbuOCIA>

# 농업용 드론으로 기성세대와 상생 꿈꾸는 이훈목 씨

## 충남 청년농부가 간다

대학 다니다 어머니 도와 수도작 하며 새 소득원 개척

농번기가 본격화되는 5월 초 충남 태안군 소원면 시목리의 한 마늘밭, 이른 아침부터 대형 드론 2기가 저 공비행으로 밭고랑을 부지런히 오가며 약제를 살포한다. 잎마름병 등 마늘 생장에 지장을 주는 병충해 방제 작업이다.

장정 2~3명이 반나절 걸려서 해야 할 물량이지만, 드론은 불과 10여분 만에 작업을 마치고 다음 작업장으로 이동한다. 작업 현장엔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신기한 듯 방제작업을 지켜보며 ‘우리 밭에도 한번 나와달라’고 일정을 조율한다.

드론 조종간을 잡은 이훈목(29)씨는 “드론 한 대가 서너명 인력을 대신하니 인건비도 줄일 수 있는데, 문제는 일할 사람을 구할수 조차 없다는 것”이라며 “농촌 고령화에 따른 부족한 일손을 드론이 훌륭하게 대체하고 있다”고 말한다.

농사용 드론을 운영하는 이씨가 속한 곳은 원이항공방제영농조합법인. 이씨는 여기서 이사직함을 맡고 있다. 2017년 충남농업기술원 시범사업을 통해 드론 1대를 보급받아 출발했다. 이듬해 이씨를 비롯한 청년농업인 4명이 법인을 설립했으며 5년이 지난 현재 드론 50대가 7월 수도작 방제시기에 태안군내 수도작 전면방제를 2회에 걸쳐 시행할 정도의 대형 법인으로 성장했다.

이 법인의 특징은 대부분 농업 종사하는 사람들로 구성됐으며, 기성농업인과 청년농업인 구분없이 나중에 정산한 뒤 수익을 1/N로 공평하게 나눈다. 지난해 매출이 7억2천만 원 정도 발생해 개별적으로 평균 2천만원 가량을 배분받았다.

사람이 떠난 농촌들녘의 모자란 부분을 드론이 대신하면서 수요가 급증하자 항공방제 면허 취득이 쉽지 않은 농업인들을 위해 교육원을 설립해 청년과 농업인 130여명의 격증을 취득을 도왔다.

그동안 드론이 고장나면 외지에 나가 비싼 값을 주고 수리를 해야 문제를 해소하는 등 다년간 태안지역 농업에 기여해온 덕에 태안군 전체 항공방제사업에서 2천700만평의 농지를 책임지고 있다.

대학을 중도에 그만두고 고향인 태안으로 돌아온 이씨의 귀농과정은 단순하다.

20여년간 헐로 벼농사를 지으면서 도 힘들다는 내색 한 번 않던 어머니가 어느날 “훈자 영농을 하기 힘드니 귀농해서 니가 내려와서 도와주면 어떻겠느냐”는 권유에서 마련 없이 학업을 접었다.

그러나 막상 귀농해서 농사를 지어보니 어머니가 하던 같은 물량에서 수입도 반으로 나눌 수 밖에 없어, 새로운 수입원 창출을 위한 아이



청년농부 이훈목 씨가 태안군 소원면에 마늘밭에서 드론을 이용해 약제를 살포하고 있다.

템을 찾아보던 중 드론에 끌하게 됐다.

드론을 활용한 농사가 기존 농업 보다 노동력을 1/5로 줄이고 시간 절약 등 현재의 농촌 현실에 비추어 경쟁력이 충분하다고 봤다.

이씨는 청년 농업인으로서 어려운 점을 기성세대와 마찰을 우선 끊았다. “청년농업인들의 지원사업이 많아지면서 기성세대는 청년농부들에게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겨난 것 같았다”라며 “자본력이 좋은 기성세대가 선점한 사업에는 청년농부들의 도전이 쉽지 않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드론을 농업에 활용하는 것이 청년농업인들이 기성세대와 다르게 차별성을 두고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자신한다.

드론활용 분야는 무궁무진하다. 4월엔 산림에 손실을 주는 선녀벌레 방제에서부터 5월엔 마늘밭 방제, 6월 수도작 중기제초제 살포 등을 거쳐 수도작 대단위 방제, 스마트팜 차광제 도포 등이 10월까지 이어진다.

이씨는 드론을 단순히 방제 위주의 농사용으로 한정짓지 않고 여러 가능성을 두고 연구하고 있다.

청소년을 상대로 드론 교육을 하

는가 하면 연구용역과 제사업 등도 맡아 진행한다. 지역사회에서 청년농업인들이 지역을 위해 봉사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올해는 태안 4·H연합회장에 당선돼 청년농업인과 기성농업인이 함께 할 수 있는 중간다리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이씨는 “청년농업인들이 개인의 소득 증대 등도 중요하지만, 조금은 마음의 여유를 갖고 공익적이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한다.

/도정신문팀



충청남도공무원노동조합 신규 공무원 연찬회

충남도와 충청남도공무원노동조합은 5월 3~4일 보령 한화리조트와 부여 백제문화재현지에서 신규 공무원과 운영진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직 가치관 설립을 위한 팀별 토론과 강의, 사례발표 등의 신규 공무원 연찬회를 열었다.

## 태안 첫 여성축구단 ‘차유WFC’ 창단식

최장일 단장·신미진 회장 등 32명의 선수로 구성

태안 여성축구단 차유WFC 창단식이 4월 29일 안면읍 리솜 아일랜드에서 개최되었는데, 신경철 군의회 의장, 최재웅 태안군 체육회장, 대한축구협회 이기학 회장 등 내빈과 선수단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사진)

모임을 갖고 본격 운동을 시작해, 2022년 11월 공식 첫 대회인 청양군수배 풋살대회에 출전해 8강에 진출한 바 있다.

지난 4월에 열린 충청남도축구협회 장애 축구대회에서는 3위를 차지하는 우수한 성적을 거둬 여자 축구단의 신선향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해부터 여성 축구에 대한 관심과 인기가 높아가는 가운데 태안군내 첫 번째로 창단된 여성축구단 차유



WFC는 최장일 단장, 신미진 회장을 비롯해 3명의 코치, 32명의 선수로 구성됐다.

/주간태안신문 제공

## 칼갈이, 밭 마사지, 환경정화 활동 청소다사랑봉사단 맞춤형 순회 봉사

코로나19로 중단했다

3년만에 21개 마을서 재개 예정

지난 5월 3일 청소다사랑봉사단(단장 이광규)이 보령시 청소면 진죽1리 마을회관(평촌)에서 마을순회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3년 만에 다시 열리는 다사랑 봉사단의 활동이다. (사진)

진죽1리에서는 칼갈이(낫, 호미, 가위, 예초기날 등), 밭 마사지, 환경정화 활동 등 다양한 맞춤형 봉사를 해면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다사랑봉사단은 앞으로 청소면 21개소 마을회관을 순회하며 봉사활동을 가질 예정이다.

이광규 단장은 청소면지역사회보장 협의체 민간위원장으로, ‘빈잔나눔 사업’, ‘독거어르신 생신상 차려드리기 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김장김치 나누기 사업’ 등 맞춤형 지역특화



사업과 복지사각지대 밭골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앞장서 왔다.

이 단장은 “3년 만에 재개되는 순회봉사를 추진할 수 있어서 기쁘고 갈수록 고령화가 되어 가고 있는 농촌에 각종 농기구나 칼날을 갈아주는 봉사와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밭 마사지로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드릴 기회가 생겨서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주간보령 제공

충남도청

신문 무료 구독신청은  
충청남도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전화문의 ☎ 041-635-2035

# 충청인의 충효 사상과 5대 정신

## 내포칼럼



편세환  
서산문화원장

5월은 가정의 달이며 예절의 달이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로 주변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서 서로가 지켜야 할 아름다운 예절과 사회적 규범이 있다.

이웃이 어려울 때 서로 돋는 따뜻한 마음, 윗사람을 섬기고 아랫사람을 사랑으로 보듬는 마음,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정의롭게 사는 마음,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항상 고운 말씨로 친절을 베푸는 자세, 이러한 모든 것이 작지만 우리의 예의며 예절이다.

예(禮)와 예의(禮儀), 예절(禮節)은 흔히 같은 뜻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나 국문학적으로 자세히 살펴보면 그 성격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즉 예(禮)는 개인적 언행으로 원활한 인간관계를 위하여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의 규범이고, 예의(禮儀)는 사회적으로 사람과의 관계에서 예를 갖추는 친절한 몸가짐이며, 예절(禮節)은 시간과 장소 등 상황에 따라 언행을 절도있게 행하는 예의범절을 말한다.

충남에는 충효정신, 절의정신, 선비정신, 개척정신, 예의정신 등 충청인의 5대 정신이 있다. 고고한 충청인의 자존심을 지키고 사람답게 사는 상경하애(上敬下愛)의 충남정신이야말로 윤리와 도덕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충청도 양반의 고귀한 정신이다.

전통적 인사법과 상하 계층 간, 가족친척 간 호칭법, 식사예절 등 예의범절에 따른 옛 규범이 많이 있다. 이를 다

지키기는 현실적으로 복잡하고 어렵다. 그러나 최소한 기본적인 예의 규범은 지키며 살아야 할 것이다.

예의 규범도 시대 상황에 따라 조금씩 변해가고 있다. 성인 남자에게는 무조건 아저씨, 여자에게는 아주머니라 불러도 이상하지 않은 사회가 되었고, 부모와 자식 간에, 술잔을 부딪치며 술을 마시는 시대가 되었다.

하기야 음식을 먹는데 까다로운 규

떨이를 중심으로 빙 둘러서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여기에서 백발의 80대 노인과 20대 초반의 여자가 함께 서서 담배를 피우는 장면을 보고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다.

담배가 무엇이기에 저런 손녀딸뻘 되는 어린 사람과 마주 서서 담배를 피울까? 한심스러운 장면이었다.

사실 담배는 마약과 같아서 한 번 흡연에 익숙해지면 끊기가 매우 어렵

피우는 것을 엄격히 금지했다.

그런 풍토가 차츰 발전하여 어른 앞에서는 담배를 피우면 아니 되는 하나의 전통 예법이 된 것이다. ‘어린 것이 담배 피우면 빼가 죽는다’라는 말이 있다.

조선 시대 통치이념은 성리학이었다. 성리학이나 유교나 그 근본정신은 예의를 지키며 사람답게 살자는데 바탕을 둔 유학 사상이다.

사회적으로 위계질서가 날로 허물어지는 이때 가정에서는 부모 형제와 자식 간의 위계질서, 사회에 남녀노소 계층 간의 질서를 중요시해야 할 것이다. 나이 20년 이상은 부모같이 섬기고, 11년 이상은 형님같이 받들고, 6년 이상은 선배로 대우해야 하며, 선생님에게는 나이와 관계없이 스승으로 모시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인터넷 속에서는 많은 정보가 흥수를 이루고 있으나 인성계발을 위한 정보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사회는 점점 각박한 물질 만능의 경제시대로 변해가고 있다.

하루빨리 인성계발과 전통적 유교문화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5월은 가정의 달이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날, 부부의날, 등 예절의 달이다.

양반의 고장 충청인의 5대 정신을 다시금 생각하며 충청인으로서의 자존심을 지켜야 할 것이다.

## “충효·절의·선비·개척·예의 정신은 충청인 5대 정신”

### 부모 형제 자식간, 남녀노소 계층간 질서 중요시 해야

범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아직은 우리의 전통적 정서에 맞지 않는 장면이 아닐 수 없다.

얼마 전 서울의 큰 병원에 문병차 방문한 적이 있다. 건물 내에는 금연 구역이기 때문에 건물 밖 한쪽 귀퉁이에 흡연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려고 흡연실을 운영하고 있었다.

흡연실 가운데는 커다란 질그릇 재떨이가 설치돼 있는데 흡연자들이 재

고 또 주기적으로 피워야 하기에 어쩔 수 없이 그런 한심스러운 장면이 연출되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담배가 들어온 것은 임진왜란 때 일본인들에 의하여 들어왔고 광해군 때는 남녀노소 상하구별 없이 담배를 피웠다고 한다.

그러나 광해군은 담배 냄새를 뭉시워했기에 신하들이 왕 앞에서 담배

## 유류피해민의 상처를 어루만져야 할 때

### 출입기자 칼럼



김지현  
충청투데이 기자

구시킨 유류피해민을 위해 삼성으로부터 기금이 출연됐다.

기금은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이하 조합)과 서해안연합회(이하 연합회)가 각 2024억 원, 1043억 원씩 배분받았다.

조합은 충남 태안·서산·당진·서천, 연합회는 충남 보령·홍성·전북 5개 시·군으로 구성돼있다. 조합은 2028년, 연합회는 올해까지 기금 사용 기한이다.

하지만 기금 사용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다.

지난해까지 조합은 157억 7500만 원을, 연합회는 기금의 원금(986억 원)에서 발생한 이자 126억 원을 집행했다.

두 단체 모두 당초 기금 사용 계획보다 실제 집행 실적이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피해민을 위한 기금이 사용되지 못하면서 피해민들은 유류피해 이후 현재까지 삶이 변한 것이 없다고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조합과 연합회의 기금 미집행에 대한 의혹도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최근 기금 집행 관리감독 기관인 해양수산부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조합과 연합회의 자금 집행을 중단시켰다.

기금 사용을 동결시키며 사실상 고강도 조치에 나선 것인데, 남은 기금이 어떻게 사용될 지에 대해선 정해진 것이 없다.

2007년 12월, 충남 바다가 겹게 변했다.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유조선 허베이스페리트호와 삼성예인선단 해상크레인이 충돌하며 원유 1만 2475㎘이 쏟아진 것이다.

이 사고로 서해안에 자리 잡고 대대손손 생계를 이어가던 충남 어민들의 생활은 한순간에 무너져버렸다.

유류피해민들은 사고 후 1년간 조업을 포기하다시피 하고 바다와 해변을 검붉게 물들인 기름을 닦아냈다.

그들의 눈물과 피와 땀으로 ‘태안의 기적’이 만들어낸 것이나 다름없다.

생계도 포기하고 바다를 원상 복

이자 유류피해민들의 불안감은 고조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유류피해민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기금 사용에 적극 개입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부분의 피해민이 충남에 살고 있기 때문에 충남도에서 적극 나서줘야 한다는 것이다.

충남 보령에 거주하는 한 유류피해민은 “우리는 기름유출 사고로 상처를 입고, 기금 미사용으로 두 번째 상처를 입었다”며 “도에서 기금을 관리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지자체뿐만 아니라 충남도의회 의원들도 기금 미사용에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내야 할 때다.

충남 홍성에 거주하는 또 다른 유류피해민은 “기름유출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을 위해 도의원들은 기금 사용이 정상화되도록 관심을 갖고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2007년 기름이 충남의 바다를 뒤덮었을 때, 도는 재난대책반을 설치해 방제에 총력을 기했다.

도의회도 기름유출 피해 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유류피해민을 지원하는 데 앞장섰다.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지금, 유류피해민에게 지자체와 의원들의 행동 하나 말 한마디가 절실하다.

이젠 2007년 충남 유류피해민에게 깊게 새겨진 상처가 더 이상 덧나지 않도록 어루만져야 할 때다.

기금이 사용 방안이 미궁에 휩싸

## 거짓말쟁이 최효실

### 소중애 문학관의 책들(29)



소중애 동화작가

까운 마음에 화가 났다. 쉬는 시간에 5학년에 다니는 효실 오빠를 불렀다.

“효실이 큰일날 뻔 했더구나. 어떤 녀석들이 그랬는지 알아?”

하고 물었더니 효실이 오빠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말했다.

“아빠 슬리퍼 신고 다니다가 돌 위에 넘어져서 다쳤는데요”

효실이 오빠의 말에 나는 얼굴 표정 관리가 안되어 잠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얼굴을 들다보니 보니 효실이가 말꼬롬이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랬구나. 그만 하기 다행이다.”

효실이 오빠를 보내고 나는 창밖을 내다보며 웃음을 참느라고 한참 동안 애썼다.

효실이 같이 착실한 애가 왜 그런 횡당한 거짓말을 했을까? 하지만 나는 효실이에게 왜 그런 거짓말을 하였는가 묻지 않았다. 오랜 교사 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암묵적 지식으로 효실이를 이해했다.

공부 잘하고 착하고 착실하니 교사나 어른들에게 칭찬을 받는 아이들은 나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 항상 칭찬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스트레스이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착한 아이가 집에 가서는 동생을 괴롭히고 부모 말을 안 듣는 경우도 있는데 효실이는 평! 한방의 거짓말로 스트레스를 날려본 것이다.

최근에는 그런 아이들을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여 착한 아이 종후군, 착한 아이 신드롬이란 용어가 생겼다.

효실이의 거짓말이 이 책을 탄생시켰는데, 지금도 웃음이 나온다.

# 제344회 임시회 조례안·추경 등 39개 안건 심의

충남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등  
동의안 9건·추경안 4건·건의안 3건

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는 9일부터 18일까지 10일간 제344회 임시회를 열고 ‘2023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 등 39개 안건을 심의한다.

도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한 ‘충청남도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 23건, 동의안 9건, 도·교육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건, 건의안 3건을 심의한다.

도와 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안 규모는 당초 기정예산 15조 9056억원에서 1조 3399억원(8.4%) 증가한 17조 2455억원으로, 경제회복 및 도민의 삶의 질 제고, 미래학습 교육 환경 구축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 심사에 돌입한다.

특별위원회의 활동도 훨씬 이루어질 전망이다. 먼저, 9일 청년정책특별위원회가 제3차 회의를 열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고, 16~17일 열릴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도·교육청 추경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조정할 계획이다.

또, 제1·2차 본회의에 각각 8명, 12명의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도정·교육행정 현안에 대한 문



제344회 임시회 1차 본회의 모습.

제를 적극하고 다양한 개선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조길연 의장(부여2)은 “열흘간 열리는 제344회 임시회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다”며 “도와 교육청의 총 1조 3,000억원

이 넘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깊이 있는 심사를 진행하고, 도정·교육행정이 도민의 뜻에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세심한 의정활동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 제344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발언

### 기후변화 대응 위한 기금 설치 촉구



김선태 충남도의원(천안10)은 체계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금 설치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세계는 지금 기후변화 시대를 넘어 기후 재난의 시대로 가고 있다. 2020년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세계위험보고서’ 미래 위협 요인 1위는 ‘기상 이변’이었고, 2위부터 5위까지도 환경문제였다”며 “충남이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남은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59기의 절반인 29기가 위치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우리나라 전체 배출량의 22%에 달하며,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7년 연속 1위로, 어떤 지역보다 탄소중립에 앞장서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하고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 차원의 기후대응기금이 필요하다”며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한다면 대기오염 배출 1위라는 불명예를 기회로 바꾸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기후대응기금 설치를 촉구했다.

### 충부권 대표 ‘금강 국가정원’ 조성 촉구



박기영 충남도의원(공주2)은 중부권을 대표하는 ‘금강 국가정원’을 조성할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순천만 국가정원과 태화강 국가정원의 경우 연간 총 5000억원이 넘는 생산 유발 효과를 낸다”며 “국가정원 지정 시 연간 수십억 원의 운영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고 도시의 브랜드 가치가 상승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주·부여·청양 3개 시·군이 공동으로 ‘금강 국가정원’ 조성을 추진하는 데 충남도의 적극적인 지지가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또한 “세종시 출범으로 18만 인구에서 10만 도시로 위축된 공주시민의 입장은 해아리고, 백제문화제의 부족한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라도 금강 국가정원 조성은 지역민의 목마름을 해소할 최적의 사업”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금강 국가정원이 중부권을 대표하는 정원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도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도 시책사업, 시·군비 매칭부담 완화해야”



이상근 충남도의원(홍성1)은 도비와 시군비 평균 매칭비율 문제와 관련,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시군분담비율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 1991년 지방자치가 출범한지 약 30년이 지난 현재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왔지만, 아직도 지방은 중앙에, 기초는 광역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광역화된 현대 행정의 경향으로 도와 시·군간 협력하는 과정에서 비용분담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부여, 청양, 서천은 도 평균의 3분의 1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도 시책사업에 대한 기초자치단체의 사업비 분담은 재정 운영에 많은 부담이 가는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재정자립도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저해하는 행위”라며 “사업예산 매칭비율의 조정을 통한 상생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가로림만 해양정원, 국가해양정원으로



이연희 충남도의원(서산3)은 ‘가로림만 해양정원’이 국가해양정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가로림만 해양정원은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로, 점박이물범을 비롯한 천연기념물과 다수의 해양생물이 서식하고 있고, 기후변화 대응에 효과적인 ‘블루카본(blue carbon)’으로 주목받고 있어 생태학적·환경적 가치가 탁월하다”며 국가해양정원 지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현재 예비타당성조사에 이어 타당성재조사가 진행중”이라며 “타당성재조사 대응에 집중하는 한편 가로림만의 해양생태계 보전 및 복원을 기반으로 한 가로림만의 특색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가로림만 해양정원은 관련법 개정과 국가계획 반영 등으로 사업요건을 모두 갖췄다”며 “가로림만이 해양생태 관광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 계룡·논산 지방도 확충 사업 조속 추진



이재운 충남도의원(계룡)은 계룡과 논산을 잇는 지방도 두마~노성간 645호선 확충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열악한 지방도 재정 투입으로 사업이 처음 논의된 후 십년 이상의 시간이 흘러 지역 주민들의 불편과 불신이 누적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늘어나는 계룡인구에 비해 인접 지역과의 교통 연계가 미흡해 지방도 645호 확포장 사업 추진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마~노성간 지방도 확포장이 완료되면 기존 노선에 비해 30분 이상 통행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공주역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어 계룡역 인근 상습 주차난 문제와 공주역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이자 도의 오랜 약속인 본 사업은 차량운행비용 절감, 교통사고 감소, 환경비용 절감 등 도민들이 누릴 편의도 큰 만큼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 조속히 개설을 완료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권역별 공공의대 설립 촉구



정병인 충남도의원(천안8)은 지역 간·진료과목 간 필수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부족한 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근본 대책으로 ‘권역별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 정원 확대’를 촉구했다.

이어 “지난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우리 사회에 떠오른 시대적 화두는 ‘공공의료’와 ‘필수 의료’의 위기였다”며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 전체 병상의 10%를 차지하고 있는 공공병원이 코로나19 환자의 80%를 감당해 냈다”며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부족한 의사마저 필수 의료과목이 아닌 성형과 미용 같은 인기과목으로 쏠림이 심화되고 있다”며 “현행 체제하에서는 쏠림현상을 구조적으로 제어할 장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충남의 ‘지역 완결적 필수 의료 구축’을 위해 ▲정부의 권역별 공공의대 신설과 필수 의료 진료를 의무화하는 사회적 논의구조 확대 ▲권역별 국립공공의대 신설과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한 여론 형성 노력 등을 촉구했다.

### 제3기 의정모니터

#### 위촉식 및 간담회 개최

##### 주민불편 해소 역할 수행

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는 10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제3기 의정모니터 위촉식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의정모니터는 도민의 현장감 있는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제도로, 이번 의정 모니터 요원은 공개모집으로 지역과 성별 등을 안내해 19명을 선발했다.

이들은 임기 2년 동안 ▲도의회에 필요한 각종 제안 및 의견 제시 ▲자치입법의 제·개정 및 폐지와 관련한 건의 ▲도민 불편사항 건의 및 의정활동 홍보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활동 우수자에게는 도의회 의장 표창과 소정의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조길연 의장은 “이번 3기 의정모니터의 모집 방식은 홈페이지 공개모집으로 전환하여 실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정예 의정 모니터로 구성되었다”며 모니터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어 “도민 일상에 도움이 되는 의정 활동을 펼치기 위해서는 도민의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듣는 것이 중요한데 그 역할을 모니터단계에서 해주셔야 한다”며 적극적 활동을 당부했다.

### 청년층 안정적 미래 위한 정책 고민

#### 5개 분야 112개 사업 집중점검

충남도의회가 청년들의 안정적인 미래를 위한 정책적 관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대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도의회 ‘충청남도 청년정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지민규)’는 5월 9일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청년정책관실을 비롯한 5개 관련 부서로부터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으며 충남도 청년정책을 점검했다.

주요 내용은 ▲청년의 일자리 진입·안착 도모 ▲청년 주거난 해소 및 내집 마련 지원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민관 협력 강화 ▲취약청년 보호 및 청년층 여가·문화 확대 ▲청년 참여 및 소통 기반의 정책 추진 등이다.

### “쌀값 안정 통해 농업 지켜야”



주진하 충남도의원(예산2)은 쌀값 안정을 위한 농업인 지원 방안을 제안했다.

주 의원은 “쌀은 한국인의 주된 식량이며, 농업인들은 오늘도 5천만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기 위해 힘을 흘리고 있다”며 5분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지난해 쌀값이 15만 원대까지 떨어진 이유는 2021년 생산된 쌀을 적기에 시장격리하지 않았고, 수확기와 맞물려 시장에 쌀이 넘쳐 결국 가격하락을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 서 “전 정부의 실책을 반면교사 삼아 실기하지 않도록 시장격리 시기를 놓쳐서는 안된다”며 제도 운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영농현실에 맞고, 소득이 보장되어 농업인 참여가 가능한 수준의 보조금 지원 등 특단의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며 “비료, 농약, 유류비 등 영농자재 가격이 오르지 않은 것이 없는 게 농촌의 현실이다. 적극적이고 현실성 있는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 조례안 발의

## 농업부산물 자원화로 자연순환농업 확산



충남도의회가 농업부산물을 자원화를 통해 친환경 자연순환농업 확산에 박차를 기하고 있다. 김민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자연순환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농산물 생산과정 중 발생하는 농업부산물의 처리를 지원함으로써 부산물을 자원순환이 가능한 유기성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세부적으로는 자연순환농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농업부산물의 가공·보관·처리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농업인과 농업경업체의 주도적인 참여를 끌어낼 수 있도록 흥보사업 지원 규정이 신설됐다.

##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제정 추진

## 박기영 의원(공주2)

장애인의 체력 증진과 자발적 체육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박기영 의원(공주2)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은 장애인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을 위해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체육 및 전문체육의 육성을 강화해, 장애인체육 인식을 개선하고 체육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장애인체육 육성과 보급 ▲장애인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스포츠클럽 및 동호회 관련 단체의 육성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 지원 등 사업 추진 근거를 담았으며, ▲장애인선수와 지도자의 고용촉진 및 체육시설의 장애인 우선이용에 관해서도 명시했다.

박기영 의원은 "장애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보다 충실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전국 최초 안전통학로 조성 위한 근거 마련



충남도의회가 도내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 조성을 위한 근거 마련에 나섰다. 박정식 의원(아산3)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교육청 안전 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안'은 도내 학생의 등·하굣길 교통안전을 확보함으로써 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학생 수송용 차량이 안전하게 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전국 최초로 발의된 이 조례안은 도내 각급학교 내 출입문과 도로를 보도와 차도로 구분해 표시하고, 도로에는 경계 턱이나 보호난간 등 필요한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또 교육감은 학교 신설·이전 시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사업 주체 등에 협력하도록 명시했다.

## 도내 진폐노동자 지원 강화한다



충남도의회가 진폐증으로 고통 받는 노동자의 건강 보호와 복지 증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봉한일 의원(예산1)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진폐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44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2차 회의에서 통과됐다.

진폐증은 폐에 먼지가 쌓여 폐 세포에 염증과 섬유증식을 일으키고, 폐가 굳어지는 질병이다.

개정안은 ▲분진작업 정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의료비 지원 및 진폐 관련 정보제공 사업 등의 예산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방 의원은 "의료비와 건강관리교육 등 지원을 통해 진폐환자의 건강한 삶과 생활 안정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성폭력 피해 학생 실질적 지원 근거 마련



충남도의회가 학교 현장에서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성폭력으로부터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신순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교육청 성폭력 피해 학생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성폭력 피해 학생의 인권회복과 치유가 중요해짐에 따라 피해 학생의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성폭력 피해 학생 보호 및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성폭력 피해 학생의 치유 및 보호를 위한 상담, 부모교육, 교직원 교육을 시행하도록 명시했다. 또 관련 단체 및 전문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 피해 발생 시 대응 지침을 마련해 성폭력 피해 학생의 즉각적인 보호와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 체계적 역사교육 통해 자긍심 키운다



충남도의회가 학생들이 우리 역사를 올바르게 인식하도록 하는 체계적인 역사교육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윤희신 의원(태안1)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교육청 역사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역사교육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활성화 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학교의 장은 학교 실정에 맞는 역사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역사교육 활성화를 추진하는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학교뿐만 아니라 외부기관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역사교육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 디지털 양극화 해소 취약계층 지원

## 이재운 의원(계룡)

충남도의회가 디지털 양극화 해소를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디지털 취약계층'은 정보격차로 디지털 활용 및 디지털 기기 접근성 등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고령자, 저소득층, 농어민,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을 말한다. 신체적·경제적·지리적 원인으로 디지털 활용의 사각지대에 놓인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재운 의원(계룡)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은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디지털 취약계층 현황 파악 및 정책 발굴을 위한 실태조사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 사업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 심야·공휴일 소아환자 외래진료 제공



충남도의회가 심야와 공휴일에 외래진료를 제공해 소아환자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이종화 의원(홍성2)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야와 공휴일에 소아환자에게 외래진료를 제공하고,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사항들이 담겨있다. 주요 내용에는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으로 지정받으려는 병원 또는 의원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을 지정 ▲이 병원에 심야시간·공휴일 진료 및 운영에 따른 경비보조사업비 지원 등이 담겼다.

이 의원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선 마음 놓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여성농어업인 핵심인력으로 키워야



충남도의회가 여성농어업인의 지원 근거 마련을 통해 여성농어업인의 복지 향상과 농어업 발전의 핵심 인력 양성에 앞장서고 있다.

정광섭 의원(태안2)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여성농어업인의 권리 보호, 복지 증진, 지위 향상, 전문인력화 및 양성 평등 확대를 통해 여성농어업인을 경영 주체이자 농어업 발전의 핵심 인력으로 양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여성농어업인의 날 신설 ▲여성농어업인 육성 정책 자문회의에 대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심의회로 개정 ▲경영 능력 향상을 위한 편의 장비 및 농어업기계 지원 근거 등을 명시했다.

## 문화재 보호·환수공로자 '명예도민'으로

## 정병인 의원(천안8)

충남도의회가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 환수운동처럼 국외소재 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에 공로가 큰 내·외국인에게 '충청남도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해 예우를 다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정병인 의원(천안8)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조 '명예도민증서 수여대상'을 기준 '문화·예술·체육·과학·기술·경제' 등의 분야에서 도 정부전에 기여한 사람'에서 '문화재(보호, 환수 등)'의 문구를 삽입해 문화재 보호·환수 기여자에게도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충청남도에서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물의 입장료 면제' 내용을 신설했다.

## 방치되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활성화



수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된다.

편삼범 의원(보령2)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수산물의 포획·채취·양식·가공·판매 등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뼈, 지느러미, 내장, 껍질 등의 부산물을 친환경·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수산부산물의 발생·처리 및 재활용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수산부산물을 재활용하기 위해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관련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 충남교육상 대상에 사립학교 직원 추가



충남도의회가 교육가족 모두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행복한 일터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도의회에 따르면 5월 11일 제344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충청남도 교육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홍성현 의원(천안1)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충청남도 교육상 수상 대상자에 사립학교 교직원을 추가한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교육행정부문 수상자를 지방공무원으로 명시했으나,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및 사립학교 사무직원'으로 규정했다.

홍 의원은 "교육가족 모두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행복한 일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이 돌아오고  
충청남도는 더 살기 좋은 고장으로 거듭납니다.



2023. 1. 1 시행

# 내고향 충남을 살리는 이주 특별한 기부



고향사랑 기부제란?

기부자



충청남도



충청남도민



주민 복리 사업 시행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소멸지역  
지원 사업

지역 공동체  
활동 촉진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 등